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창간호 2010. October Vol.01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여행사 보증은 여행공제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10 MAY

공제지급보증

항공, 철도, 여행도매업업자, 선박 등과의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를 이행보증합니다.

공제영업보증

영업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하면 법령에 의거 등록이 취소됩니다.

공제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보증합니다.

공제회 협력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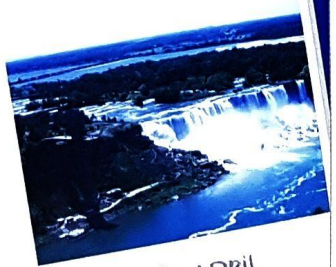
여행도매업자 |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현대드림투어, 세중투어몰여행, 롯데관광개발, 오케이캐쉬백서비스(주)투어비스, 레드캡투어, 맥여행사, 자유투어, 노랑풍선, 한진관광, 롯데제이티비, 투어이천, 포커스투어, 하나유스, 걸리버트래블어소시에이트, 신한투어, 여행사닷컴 등

항 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철 도 | 한국철도공사

선 박 | 큐슈여객철도, 대아여행사, 한일고속, 대아고속해운, 씨월드고속훼미리, 한국고속해운, 크루즈홀리데이코리아 등

금강산 · 개성 | 현대아산



2010 APRIL

공제회는 여행사 전담 보증기관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KTA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 팩스 02-757-7490

KATA 02-752-8692

서울 02-757-7482 | 감원 033-242-0089 | 부산 051-463-3111 | 충북 043-231-5563

대구 053-746-6407 | 충남 042-254-5465 | 인천 032-432-4590 | 전북 063-287-6292

광주 062-224-4486 | 전남 061-285-0833 | 대전 042-226-8413 | 경북 054-745-0750

울산 052-275-2412 | 경남 055-212-1345~6 | 경기 031-255-8424 | 제주 064-742-8861

Dynamic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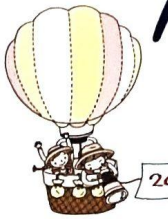
BITF 2011

제14회 2011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Travel Fair

부산국제관광전

2011.9.2(금)~5(월)

BEXCO



문의 : 051-463-3111

부산국제관광전에서 세계를 만나다!

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 BUSAN TOURISM ASSOCIATION 부산광역시관광협회

www.eunsan.co.kr
賞
제15회 바다의 날 정부 포상
'산업포장수상'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는 은산의 힘!"
은산의 진정한 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한 '믿음' 입니다.
은산해운항공㈜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은산이 더 큰 바다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종합물류 프론티어, 은산해운항공㈜
대표이사 양 재 생
EUNSAN
銀山海運航空株式會社
銀山컨테이너터미널株式會社
銀山輸出包裝株式會社
■서 울 : 서울시 중구 소공동 21번지 한컴빌딩 8층 Tel. 02)772-9966 Fax. 02)773-9969
■부 산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7-5번지 해양빌딩 8층 Tel. 051)441-9966 Fax. 051)441-9969
■양산CY/CFS : 경남 양산시 어곡동 870-3번지 Tel. 055)385-9965 Fax. 055)381-9969
■신항만CY/CFS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07-2번지 Tel. 051)557-9966 Fax. 051)557-9969
■포 장 : 경남 양산시 어곡동 425-21번지 Tel. 055)362-9966 Fax. 055)365-9969

Fly smart
문의 및 예약 : airbusan.com / 1666-3050
가격도 스마트! 스케줄도 스마트!
에어부산으로 일본여행이 스마트해진다
AIR BUSAN
에어부산, 3월 29일 후쿠오카 4월 26일 오사카 취항
지금까지의 일본여행은 모두 잊으십시오
스마트한 항공사 에어부산으로 후쿠오카와 오사카 여행이 스마트해집니다!
에어부산만의 합리적인 가격에 아시아나항공 공동운항으로 편리한 스케줄까지-
이제 에어부산으로 일본여행을 가장 스마트하게 즐기세요!
부산 → 후쿠오카: 매일 09:40(출발) - 10:30(도착), *매일 17:00(출발) - 17:50(도착)
후쿠오카 → 부산: 매일 11:20(출발) - 12:15(도착), *매일 18:50(출발) - 19:50(도착)
부산 → 오사카: *매일 09:30(출발) - 10:50(도착), 매일 16:00(출발) - 17:20(도착)
오사카 → 부산: *매일 11:50(출발) - 13:20(도착), 매일 18:10(출발) - 19:40(도착)
(*) 아시아나항공 공동운항편입니다 ※항공스케줄은 정부인가 조건이며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예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R BUSAN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Contents

2010. October Vol.01 창간호

07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임원명단

09 세계관광의 날 기념행사 개최

10 창간사 / 이근후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회장)

11 축사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12 축사 /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3 축사 / 신정택 (부산광역시 상공회의소 회장)

14 불꽃축제

18 천정개방형 오픈탑 버스 부산을 달린다

19 부산항 모항 크루즈 관광시대

24 저가 항공사 국내선 34%점유

26 서낙동강 국가공원조성

27 중국인 관광객과 함께하는 Tour-Buddy 캠페인 개최

30 유엔평화특구 각종기념사업추진

32 동부산 관광단지 각종 사업 본격화

36 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및 관광지

42 부산광역시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유치 총력전

29 칼럼 · 부산국제 영화제
/ 이해원 (에드21 대표이사(본지 편집위원))

46 칼럼 · 사라진 용미산을 아는가
/ 조재완 ((사)아시아태평양 관광학회 부설연구소장)

47 칼럼 · 호텔리어 / 유영준 (호메르스 호텔 상무(총지배인))

48 칼럼 · 부산과 빛의 관광
/ 이철형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49 칼럼 · 부산, 컨벤션과 전시 · 공연 이벤트의 중심도시인가
/ 김비태 (부산관광 컨벤션뷰로 사무처장)

"부산 관광산업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2대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임원〉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장 이 근 후 (주)신성산업 피닉스호텔

수석부회장	류 연 국	(주)초원국제여행사
부 회 장	염 선 희	가야회관
	유 용 열	달우자수정
	송 세 관	태평양관광(주)
	이 동 호	(주)부산롯데호텔
	강 준 구	(주)진성관광여행사
	최 용 하	(주)파라다이스글로벌
	김 해 룡	부산해상관광개발
감 사	임 우 재	(주)부산프라자호텔
	김 진 욱	제이비투어(주)
이 사	최 재 원	(주)부산호텔
	박 영 호	(주)파라다이스호텔부산
	조 성 한	(주)노보텔엠버서더부산
	유 영 준	(주)호메르스호텔
	도 근 호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박 광 수	(주)보고투어여행사
	황 희 발	(주)국제여행
	박 연 옥	(주)로얄항공여행사
	강 홍 순	(주)오륙도고속관광
	서 외 득	(주)베스트관광여행사
이 사	길 상 윤	(주)부산고속관광여행사
	이 승 효	(주)부산은성관광
	강 석 환	(주)두모문화산업
	이 정 희	(주)영일고속관광
	정 판 덕	(주)새부산관광투어
	조 용 황	한국명품민예사
	이 태 섭	게스 후?
	유 상 용	금수복국
	김 경 자	고려정
	요 여 승	동화반점
	이 봉 순	리컨벤션
	김 영 필	부산아쿠아리움
	김 경 영	부산관광사진
	민 영 기	부산상공회의소
	조 재 원	부관훼리(주)
	이 동 우	아시아나항공
	남 용 우	씨클라우드호텔
	진 영 수	JR큐슈고속선(주)
대외협력본부장	김 종 규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장	박 성 하	부산광역시관광협회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2010. October Vol.01

Cover Story
누리마루에서 본 불꽃축제

2010 창간호

발행 · 편집인 이근후
편집위원 손해식, 이평규, 김종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0년 10월 20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70-95 나산리츠 202
TEL. (051)206-7500 FAX. (051)205-7767
E-mail. btjbusan@hanamil.net
편집 · 디자인 보문디자인 (051)469-3563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관광 발행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품)

부산시관광협회

제37회 세계 관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37회 관광의 날 행사가 지난 6일 시내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행사는 뜻깊은 세계관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배영길 행정부시장, 박종수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각 대학교수 등 관광사업 경영주 및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근후 관광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광산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지향적 산업이며,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가성장 동력 산업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광협회 회원과 함께 우리가 저력있는 관광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부산관광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위해 합심, 단결합시다"라고 다짐하였다.

제23회 관광대상 수상

영일고속관광 대표이사 **이 정 희**

올해 영예의 '관광대상'은 (주)영일고속 관광 이정희 대표가 수상했다. 이대표는 경남창원에서 출생, 경남대학교 졸업, 68년 천일관광여행사, 뉴부산관광, 부일관광여행사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42년간 여행 업계에서 외길을 걸어왔다. 이정희 대표이사는 관광협회 이사, 한국 일반여행업협회 이사, 한국 환경보호 실천연합회 고문과 수영구청 방위협의회 회장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오고 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 부산광역시장 표창

이 형 도	(주)신세대여행사 대표이사
정 철 호	부산롯데호텔 식음연회 과장
허 인 덕	부산롯데호텔 조리팀 헤드쉐프
김 동 민	호텔농심 식음료팀 과장
박 복 만	노보텔앰배서더부산 판촉과장
백 민 희	새한일상조(주)여행부 실장
강 현 순	그랜드코리아레저(주)부산롯데점 팀장

●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회장 감사패

조 익 건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관광기획계장
사사키 야스오	일본국 나가사키시 부산사무소장
하 영 태	부산권의료산업협회 사무국장
박 칠 빔	한국관광공사영남권협력단 차장

●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회장 표창

왕 인 선	부산유스호스텔아르피나 영업팀과장
임 승 진	(주)미스미스터여행사 부장
이 재 형	(주)영일고속관광 부장
박 영 자	(주)한남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한 재 진	부산광역시관광협회 관광안내원

●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손 명 수	(주)모두랑투어 대표이사
김 봉 수	풍경여행사 대표
송 백 영	부산롯데호텔 객실팀장
박 지 택	씨클라우드호텔 관촉과장
김 수 영	가야회관 사원
손 종 우	부산해상관광개발 마케팅 팀장

창 간 사

이 근 후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장

부산은 산, 강, 바다를 아우르는 삼포지향(三包之鄕)으로 개항 134주년을 맞는 한국 최대의 국제항구 도시입니다. 김해 국제공항과 북항의 국제여객부두, 영도 동삼동의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개설하고 있고, 경부고속 전철(KTX)의 시·종점이자 전국 주요도시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고속버스 터미널, 일반열차와 연안여객부두의 터미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내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지하철이 3개 노선에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형적으로 낙동강하구로부터 장방향으로 길게 뻗어 동남향으로 이어지는 바다와 더불어 약 200여Km나 되는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화물처리 능력을 갖춘 신항만으로 인해 동북아 허브항으로서도 이름이 났으며, 1950년대 초반 한국동란으로 인해 세계 유일의 UN묘지 공원이 탄생된 평화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2005년에는 해운대 동백섬의 누리마루하우스에서 APEC 21개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유명 관광지로서는 용호동의 UN평화공원, 센텀시티의 BEXCO, 광안대교와 남항대교 및 해운대의 온천휴양지, 용두산 공원과 부산타워, 광복동과 남포동의 패션 및 쇼핑거리, 서면일대의 메디컬 투어 거리, 태종대 유원지와 금강공원, 범일동 자성대, 용호동의 이기대와 신선대, 동래산성과 같은 역사 유적지, 그리고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등 재래시장도 관람과 쇼핑에 안성맞춤이라 하겠습니다. 가을에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PIFF)나 광안리 해변 불꽃축제 그리고 을숙도 꿈의 낙조 분수대는 이미 세계적인 관광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용호동의 부산시립 박물관과 복천동의 야외 노천박물관이 유명하고 부산대, 동아대등 대학 박물관의 소장품들은 선사시대로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유명 면세점(롯데, 파라다이스)과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들이 즐비해 쇼핑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觀光釜山」의 창간을 계기로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회원사 그리고 관광종사자 간에 화합과 소통을 원활히 하며 「觀光釜山」의 발전을 위한 각자의 사명의식을 고취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자료 수집과 정보제공은 물론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도 편리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축 사

허 남 식
부산광역시장

부산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비롯해 엄선된 관광 정보만을 담은 부산 전문 여행정보지 「觀光釜山」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0년 한국 방문의 해에 창간되는 「觀光釜山」이 부산을 찾는 여행자 모두에게 좋은 길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은 뚜렷한 사계절에 맞춰서 독특하고 흥미로운 축제와 다양한 국제 행사가 열리는 문화와 축제의 도시이며 국제 전시 컨벤션 도시입니다.

올해로 15회째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 부산세계불꽃축제, 바다축제, 국제비엔날레, 국제 락 페스티벌 등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문화 축제가 여행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장기적으로는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 수용 태세 확립,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우리 부산의 관광산업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또 천혜의 관광자원과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 등을 잘 살려 부산을 사계절 휴양도시로 만들기에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이 나라와 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새로운 유·무형의 관광자원개발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겠습니다.

내외의 깊은 관심 속에 창간하는 「觀光釜山」이 기쁨이 넘치는 부산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 관광축제와 여러 볼거리를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는 관광 메신저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시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여행 환경과 품격 높은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축 사

제 종 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다양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문화 도시, 체험하고 싶은 매력적인 부산을 소개할 월간「觀光釜山」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능을 넘어 감성이 지배하는 21세기, 도시도 이제 양적인 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도시들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 문화적 정체성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의 '도시'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유통되는 하나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도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있는 도시는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그렇지 않은 도시는 창고 속에 재고품처럼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빼어난 기후, 다양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부산은 관광객들의 감성을 끌어당기고 매력적인 세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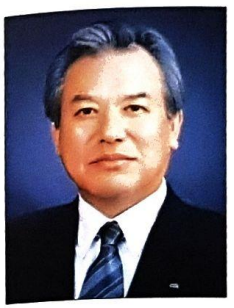
과거 관광이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재나 시설들을 보는 데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현지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하고 실속 있는 정보로 채워질「觀光釜山」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이나믹한 부산의 참모습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보고 즐길 것들이 많은 우리 부산이 품격 있는 문화도시, 동북아 최고의 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월간「觀光釜山」이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견인차가 되어 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신 정 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觀光釜山」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울러 창간호 발간이 있기까지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부산시관광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광산업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고부가 성장동력 산업인 동시에 우리 부산을 이끌어 갈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부산은 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뒤지지 않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시안게임,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을 통해 관광부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러한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부산의 관광산업을 냉철히 분석하는 객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첫 걸음을 내딛는「觀光釜山」에 요구되고 있는 것도 부산이 관광산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보지로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 부산에는 중국인 해외관광객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도 올해 9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최근 부산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역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해외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지역의 새로운 관문을 열고자하는 뜻이 담겨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산은 이러한 노력과 다양한 환경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는 관광 인프라를 개발해 이를 가치화시켜 개발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성장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1세기 부산의 도시비전은 동북아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력 있는 관광 인프라의 구축이 전제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觀光釜山」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며, 이를 위한 매체로 자리매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觀光釜山」의 발간 취지가 시민은 물론, 지역 사회 전반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바라며,「觀光釜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불꽃축제, 사흘간 '3색 테마쇼' 펼쳐진다!

부산시는 광안리 앞바다를 불꽃으로 수놓는 '제6회 부산세계불꽃축제'를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불꽃축제가 '한국방문의 해(2010~2012년)' 대표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재)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부산시와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기간도 종전 하루 또는 전야제를 포함해 이틀이었던 행사를 사흘로 늘려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체류형 관광축제'로 탈바꿈시켰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특별이벤트로 슈퍼주니어 샤이니 보아 등 '한류스타 공연'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세계불꽃의 날'로, 해외불꽃경연대회 수상경력을 가진 포르투갈, 이탈리아, 중국 등 3국을 초청해 불꽃 뮤지컬쇼를 연출한다. 마지막 날에는 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부산불꽃의 날' 행사가 펼쳐진다. 이 행사에 적용될 스토리텔링의 주제는 '크고 강한 부산, 희망의 세상을 향해 하다'로 정해졌다. 부산불꽃의 날 행사 불꽃쇼 연출시간은 지난해 40분에서 올해 50분으로 길어지면서 쏘는 폭죽 수도 종전 7만 발에서 8만 발로 늘어난다. 역대 최대 폭죽 수다.

이번 불꽃축제기간 중 한류스타 공연과 불꽃쇼 등을 보기 위해 부산 방문 예약을 마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이미 1만 명을 넘었다. 올해 불꽃축제가 한국방문의 해 한국 대표축제로 지정되면서 국비 6억 원을 처음 지원받는다. 시비도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7억 원, 협찬 9억 원 등 총 22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도 예년보다 갑절 늘었다.

10.21(목) '라이브 파워뮤직' 한류콘서트
- 장소 :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민락회센터 앞)

10.22(금) 세계불꽃의 날
- 식전행사(18:00 ~20:00) 마칭밴드 등 무대공연

10.23(토) 부산불꽃의 날(본행사)
- 불꽃음악쇼(18:00~20:00)
  - 관람객이 참여하는 시민응원전(풍선피포먼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2010년 8월 부산 외국인관광객 동향보고

총괄

- 2010년 8월 부산 외국인 관광객은 223,73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5% 증가(전국대비 구성비 26.8%)_전국 833,693명 방문하여 전년동월대비 19.8% 증가
- 2010년 8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465,84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0% 증가_전국 5,744,778명 방문하여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

〈2010년 8월 현재 외국인 관광객 현황〉

구 분	09년 8월(누계)	10년 8월(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월평균방문
부 산	168,809 (1,345,046)	223,732(1,465,845)	32.5(9.0)	183,231
전 국	695,880 (5,097,493)	833,693(5,744,778)	19.8(12.7)	718,097

- 7월부터 월별 성장률이 전국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_부산 : 6월(32.7%), 7월(41.0%), 8월(32.5%) _전국 : 6월(35.4%), 7월(23.9%), 8월(19.8%)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2010년 8월 국적별 관광객 수

구 분		한국전체	부산입국경로			외국선원	합 계	전년동기	증감비	구성비
			공 항	항 구	타지경유					
총 계	월 계	833,693	43,827	67,743	77,658	34,504	223,732	168,809	32.5	100.0
	누 계	5,744,778	310,712	376,715	537,911	240,507	1,465,845	1,345,046	9.0	100.0
일 본	월 계	262,157	20,221	17,990	7,461	2,602	48,574	49,904	-3.3	21.6
	누 계	1,947,858	165,829	106,783	75,521	20,206	368,339	425,561	-13.4	25.1
중 국	월 계	241,987	10,159	23,563	32,721	1,528	67,971	34,368	97.8	30.4
	누 계	1,262,320	45,602	91,143	172,160	11,344	320,249	214,136	49.6	21.8
홍 콩	월 계	20,996	739	478	953	1,620	3,790	2,755	37.6	1.7
	누 계	151,224	2,377	2,417	6,940	11,160	22,894	24,403	-6.2	1.6
대 만	월 계	38,061	756	209	1,940	20	2,925	3,010	-2.8	1.3
	누 계	274,627	5,316	1,610	14,131	466	21,523	26,438	-18.6	1.5
태 국	월 계	15,388	733	89	946	114	1,882	1,397	34.7	0.8
	누 계	158,847	6,678	1,290	10,580	669	19,217	14,252	34.8	1.3
싱 가 포 르	월 계	5,851	53	76	526	1,129	1,784	1,210	47.4	0.8
	누 계	58,980	497	1,239	5,549	7,756	14,852	11,981	24.0	1.0
미 국	월 계	56,377	1,921	1,804	7,38	718	11,791	11,211	5.2	5.3
	누 계	438,380	13,484	11,308	58,430	3,595	86,817	82,379	5.4	5.9
캐나다	월 계	11,374	343	575	2,243	-	3,161	2,764	14.47	1.4
	누 계	80,521	2,515	4,305	15,402	-	22,222	18,556	19.8	1.5
영 국	월 계	8,555	430	723	1,444	951	3,548	2,800	26.7	1.6
	누 계	63,673	2,500	4,649	11,009	6,867	25,025	23,418	6.9	1.7
프랑스	월 계	6,893	150	191	1,467	71	1,879	1,538	22.2	0.8
	누 계	44,025	1,132	875	8,988	533	11,528	10,378	11.1	0.8
독 일	월 계	8,095	714	434	1,201	1,117	3,466	3,448	0.5	1.5
	누 계	64,749	4,852	5,283	9,590	9,356	29,081	28,490	2.1	2.0
러시아	월 계	13.073	471	1,370	1,891	498	4,230	3,762	12.4	1.9
	누 계	99,177	3,244	10,883	13,424	5,894	33,445	34,512	-3.1	2.3
호 주	월 계	8,551	169	384	1,162	-	1,715	1,417	21.0	0.8
	누 계	74,100	1,096	5,457	9,934	-	16,487	13,561	21.6	1.1
기 타	월 계	110,037	4,704	18,822	12,353	24,136	60,015	44,350	35.3	26.8
	누 계	816,082	36,711	123,530	93,697	162,850	416,788	375,004	11.1	28.4
교 포	월 계	26,298	2,264	1,035	4,002		7,301	4,875	49.8	3.3
	누 계	210,215	18,879	5,943	32,556	-	57,378	41,977	36.7	3.9

부산, 10월 '축제열기' 속으로 빠져들다!

지역특성 살린 축제 잇따라… 보고 먹고 즐길거리 '풍성'

10월, 부산 가을축제의 막이 올랐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세계불꽃축제 같은 굵직굵직한 축제도 있지만,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지역축제도 잇따랐다.

동래읍성 역사축제

제16회 동래읍성 역사축제는 10월 8~10일 동래읍성 북장, 동래문화회관, 온천장 등에서 열렸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 재현, 세가닥 동래줄다리기 재현 등 보고 즐길거리가 풍성했다.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한 동래장터에서는 '동래통보' 엽전으로 동래파전, 막걸리를 사먹을 수 있어 좋았다고 축제를 찾은 시민 김민희(동래 수안동)씨는 말한다.

동래읍성 역사축제

금정예술제

자갈치축제

금정예술제

제15회 금정예술제도 8~10일 스포원파크(옛 금정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올해 축제 테마는 '금정산성과 막걸리'. 최근 부산 대표 **명품주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정산성막걸리를 실컷 마시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겼다. 제4회 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이 지난 9~10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렸다. 널뛰기, 윷놀이, 판소리 같은 전통문화를 다채롭게 만날 수 있었다.

자갈치 축제

부산의 대표적 수산물 축제인 제19회 부산자갈치축제는 1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7일까지 5일간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광복로, PIFF광장 등에서 열렸다. '생선회 맛천국, 자갈치'를 주제로 거리행진, 축하공연, 장어 · 문어 잡고 이어달리기, 범선 체험, 수산물 깜짝경매 등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선보였다.

이밖에 동래구 노인건강대축제(12일), 온천천 야외 작은 음악회(16일), 제3회 부산진구 청소년예술제(20~22일), 제5회 철마한우불고기축제(21~25일), 제18회 낙동민속 예술제(23~24일), 제3회 부산고등어축제(29~31일) 등 지역축제가 줄을 잇는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해운대구 관광안내 경연대회

부산 해운대구는 영어로 해운대를 안내하는 '영어로 말하는 해운대 관광 안내 경연대회'를 오는 28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광특구 해운대를 국내 · 외에 널리 알리고 영어로 해운대를 소개하는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영어와 한글로 된 원고를 오는 20일까지 해운대구 담당자 이메일(bk585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관광특구 해운대의 자랑, 유명 관광지, 온천, 역사, 관광자원 등 어떤 내용이든 가능하다"며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대학, 관광사업체, 호텔 등 관련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류 심사를 통해 예선을 거친 참가자들은 오는 28일 직접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수자에게는 10만~5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이민지 객원기자

해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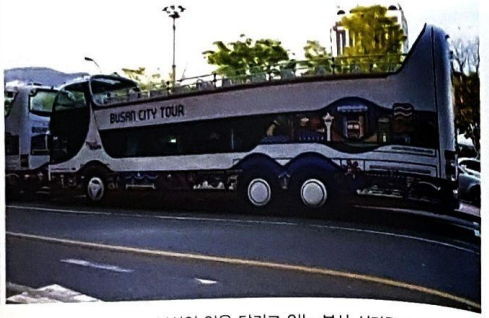
부산출발, 中國 서안(西安), 정주(鄭州) 단독 전세기 운항

우리투어 http://wooritour.kr

부산에 본사를 두고 영업 중인 우리투어 「(株)한국청년여행사」에서는 2010년 추계시즌을 맞이하여 중소여행사의 항공좌석난을 해소하고, 부산출발 상품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서안과 정주에 대한항공을 이용한 단독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고 있다.
본 전세기는 2010년 10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주 2회로 대한항공 737-900(185석) 기재를 이용한다. 본 전세기 운영의 특이할 점은 매주 화요일 출발 4박6일의 일정은 부산을 출발하여 정주로 들어가서 서안에서 부산으로 직접 나오는 일정이며, 매주 토요일 출발 3박5일의 일정은 부산출발 서안으로 들어가서 정주에서 나오는 일정이다.
부산에서 현재까지 서안과 정주 두개 지역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가 없었던 특이한 운영으로서, 서안과 정주와 더불어 주변 지역인 낙양, 개봉, 등봉, 초작등의 지역을 동시에 경험 할 수 있는 항공일정으로 2010년 유네스코선정 세계문화유산인 소림사, 용문석굴, 진시황릉, 백마사, 소림음악대전등 다양한 중국의 고대 문화 유적지 및 태항산, 운대산, 화산, 숭산등 뛰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는 산을 연계한 일정을 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담당자 : 이병준(051-469-1120)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부산역 앞을 달리고 있는 부산 시티투어 오픈탑버스

부산시티투어 천정개방형 오픈탑버스가 부산을 달린다!

부산 시티투어 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투어 버스' 라기보다는 '순환 버스' 라는 점. 승차권 한 장으로 하루 종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운대코스과 태종대코스, 도심순환코스 사이 환승도 가능하다. 단, 을숙도자연생태코스와 야경코스는 타 지역의 '투어 버스' 처럼 버스를 타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코스를 도는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부산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관광개발㈜은 지난 5월부터 천정개방형 오픈탑 2층 버스를 도입했다. 버스 1층에는 17개, 2층에는 47개의 좌석이 있다. '천정개방형' 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층에는 천정이 없다. 버스를 타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면 파란 하늘이 올려다보이는 탁 트인 2층. 버스 높이가 4m 정도라고하니 눈 높이는 그보다 조금 더 높겠다. 5m가 채 안 되는 높이이건만 체감 높이는 전혀 다르다. 적어도 10m 이상 올라온 느낌이다.

해운대코스는 오전 9시20분 부산역을 출발하는 버스를 시작으로 40분 간격으로 총 12회 운행한다. 그중 오픈탑 버스는 단 두 차례밖에 운행하지 않는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부산관광개발 측은 원칙적으로 오픈탑 버스의 출발 시간을 공개하지 않는다. 두 차례 뿐인 운행 시간에 손님들이 몰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도심을 달리는 것도 이색적이지만 역시 부산의 풍경은 바다다. 해운대코스의 백미 또한 바다 위 광안대교 상판을 달리는 구간. 웬만한 테마파크의 놀이기구 이상의 스릴마저 느껴진다. 광안대교 상판을 오픈탑 버스로 관광한 후 버스가 종점인 부산역에 도착하더라도 내리지 말자. 그 버스가 그대로 20분을 정차해 다시 태종대코스를 돌기 때문이다. 어차피 순환버스는 한 번의 요금으로 하루 종일 탈 수 있다.

태종대코스는 어떠한가? 특히 영도 절영산책로 위 도로를 달릴 때에는 4m 이상의 눈높이가 더해져 마치 해안 절벽 위 도로를 달리는 착각에 빠져들 정도. 그 밖에도 남항대교, 송도해수욕장 해변길 등 바다를 끼고 도는 구간이 해운대코스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 태종대에 내려 감시 순환열차 '다누비' 를 타 봐도 좋고, 그냥 어디에도 내리지 말고 한 바퀴 드라이브만 즐겨도 좋다. 태종대코스 역시 첫 차가 오전 9시20분 부산역을 출발하며 4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오픈탑 버스는 하루 두 차례 운행. 먼저 해운대코스를 돌고 난 후 그 버스가 다시 태종대코스를 운행하니 이를 참고하면 두 코스 모두 오픈탑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자사업 세부계획 마련

해양레포츠 허브도시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국내의 각종 요트 경기대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최정상 전국 요트대회, 7월 제5회 부산컵 크루즈 요트레이스 선수권대회, 9월에는 부산시장기 드래곤보트 대회, 그리고 10월 27일~31일 까지는 부산컵 세계여자 매치 레이스 요트대회가 개최된다. 이처럼 요트경기가 활성화되자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동북아 최고의 현대식 복합 마리나 시설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23만 4천249㎡의 부지에 총 사업비 1천568억 원을 들여 노후화 된 계류장 등 마리나 시설을 전면교체하거나 보강하고, 상업 및 숙박시설까지 갖춘 현대식 종합 해양레저 관광기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박중인 수영만요트경기장의 요트들

사업은 제3자 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며,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은 30년이다. 시는 최근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접수된 2개 민간컨소시엄의 사업제안에 대해 '적격' 통보를 내리고 9월 28일까지 보다 세부적인 2단계 사업제안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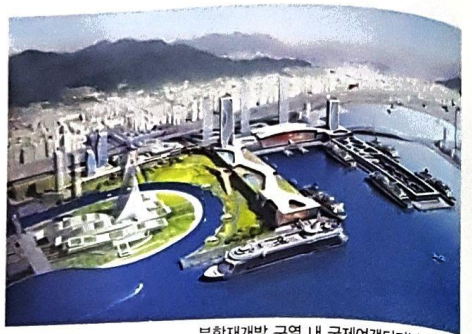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간컨소시엄은 현대산업개발을 주관사로 한 (가칭)아이파크 마리나㈜와 SUTL글로벌(싱가포르 업체)을 주관사로 한 (가칭)SUTL마리나부산㈜으로 각각 금융권 및 지역 건설업체 등이 참여했다. 시는 내달 2단계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1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후 내년 초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공사는 2012년 초에 시작돼 2013년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요트경기장의 계류능력은 현재 448척에서 650척 수준으로 확대되며, 8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9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또 각종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까지 확충돼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와 같은 동북아 최고의 해양레저 및 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부산항 모항(母港) 크루즈 관광시대

부산항 크루즈 관광시대가 열릴 전망


북항재개발 구역 내 국제여객터미널 조감도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부산항에는 한 · 중 · 일 3개국을 도는 크루즈 선박이 모두 78차례 입항하고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부산항을 모항으로 입항하는 횟수가 모두 28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부산항의 크루즈선 입항 횟수(31회, 3만4400명)와 거의 맞먹는 규모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크루즈선들의 단순 경유지(기항지)에 머물렀던 부산항이 이제는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격상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영향으로 부산항을 찾는 국내외 크루즈 여행객들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얄 캐리비언 인터내셔널(RCI) 아시아 · 태평양본부의 사령탑인 켄빈 탄 본부장은 "부산 경남을 비롯한 한국의 크루즈 수요와 향후 시장 전망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에도 부산항을 모항으로 한 크루즈상품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레전드호의 부산 취항은 아시아 크루즈시장의 핵심 중 하나인 한국과 부산에 대한 RCI의 관심과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광 인프라 개선 · 확충에 힘 기울여야

크루즈선 한 척의 부산항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적 기여도는 2억7000만 원 정도로 추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다. 이 금액에서 선용품 적재 비용은 빠져있다. 조사내용을 보면 크루즈선 입 · 출항료와 부두 접안료, 예선 · 도선료 등을 합친 금액이 935만여 원에 이른다. 또 승객 및 승무원(2000명 기준)의 시내 관광 · 쇼핑 등 지출비는 2억6400만여 원으로 추정됐다.

KMI는 크루즈선 한 척의 전체 승선인원 중 80% 가량이 배에서 내린 뒤 시내에서 1인당 평균 110달러를 소비하고 환율은 1200원으로 가정해 이 같은 금액을 산출했다. 1인당 지출액은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다 선용품 비용까지 더해지면 크루즈선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올 들어 크루즈선들이 부산항에서 적재한 선용품 구매비용의 96.4%가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이고 3.6%만이 내국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 선임연구위원은 "크루즈 선용품에 부산제품 등 국산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크루즈선의 외국인 여행객들이 부산에서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고, 다시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 · 쇼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3월 부산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한 척의 중국 관광객들이 시내 면세점 한 곳에서만 하루 6억 원을 쇼핑한 것을 볼 때 관광마케팅 전략을 국가별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통문화와 부산만의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 인프라 개선 ·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부산 등 6곳에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

크루즈선박

해양 · 항공레저 · 관광육성방안 등 발표

정부가 2020년까지 부산을 비롯한 전국 6개 항만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개발하는 등 올 연말까지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해양 · 항공 레저 · 관광 육성방안'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크루즈선의 국내기항 확대를 위해 선상 출입국심사 서비스, 기항지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박 확보 지원과 크루즈선 승무원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를 완화해 국적 크루즈선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외 크루즈 수요 추정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시설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해안 도보여행길로, 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11개 시 · 도의 52개(505km)노선이 최종 선정됐다. 부산은 사하구 몰운대길, 영도구 절영해안로, 해운대구 해운대삼포길, 기장군 해양산책길이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은 울주군 새천년로, 동구 대왕암길이 뽑혔으며 경남은 남해군 다랭이길, 물밑 해안도로, 고성군 공룡화석지 해변길 등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도보여행길을 '해안누리길'로 명명,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 이야기가 있는 걷기여행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레저 육성 방안에는 윈드서핑과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 스포츠를 도시 근교에서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갯벌 생태체험 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백령도와 울릉도(독도)를 잇는 해양영토탐방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북항 3 · 4부두 국제해양관광 거점 개발 구체적 추진방안 나왔다!

국제 해양 관광거점과 해양수도 관문으로 개발

부산 북항재개발 구역에 조성되는 복합항만지구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립 규모와 도입 기능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나왔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중구 중앙동 BPA 회의실에서 '북항재개발 사업 복합항만지구, 복합환승센터 건축기획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북항 3, 4부두 자리에 건립되는 복합항만지구(15만3412m²)는 국제해양관광 거점과 해양 수도의 관문으로 개발된다. 이 곳에는 국제여객 · 크루즈터미널 등 공공시설과 상업 · 업무 · 숙박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공공시설은 BPA가 직접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조2288억 원으로 추산됐다. BPA는 북항재개발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이 터미널을 2013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부산역 뒤쪽에서 지상 '덱'으로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4만472m²)는 환승시설 및 관광교통지원센터로 꾸며진다. 관광교통안내소와 편의시설, 주차장, 쇼핑몰 등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 민간 창의성 활용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유치방식 또는 부지 매각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총 43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김대현 객원기자

용호부두, 해양레저 문화관광 친수공간으로

부산 도심에 인접한 중소형 부두인 남구 용호부두 일대가 해양문화관광 시설과 친수공간 등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용호부두 재정비 방안 연구 용역'의 수행기관을 뽑는 공개경쟁입찰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돼 5개월간의 용역작업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항의 대규모 사업인 북항재개발을 제외하고 소규모 무역항을 전면 재개발하는 것은 용호부두가 사실상 처음이다.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은 용역 제안서에서 용호부두 일대의 재개발 방향을 주변 환경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레저 기능과 친수공간 쪽으로 잡았다. 한국해양대 용역팀은 "용호부두는 이기대 및 해안 산책로, 오륙도, 광안대교 등 인근 관광자원과는 이질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자원과 연계성 있는 친수공간이 되도록 재개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용역팀은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재정비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투자재원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올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괄연구책임자인 남기찬 교수는 "용호부두를 재정비하는 것은 성격이나 내용 면에서 부산 북항재개발의 축소판과 마찬가지"라며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BPA는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부의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용호부두 기능 전환이 반영되도록 하고, 북항재개발 사업처럼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도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내년 하반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2년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2013년 이후 재정비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현재 용호부두

현재 다대포항

다대포항 문화공간 갖춘 방파제 건설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계획 평면도

태풍이나 폭풍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다대포 항에 외곽 방파제가 친수형 테마공간으로 건설된다

부산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다대포항 외곽 방파제 축조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다대포항에 방파제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은 한국종합기술공사가 맡았다.

해항청은 10개월간의 기본용역에서 방파제 건설 규모·위치 등을 도출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2012년 초 착공해 2015년께 완공한다는 목표다. 총사업비는 1500억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 방파제의 부대시설로 친수형 테마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방파제를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로만 짓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여가 선용장과 자연학습장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기본설계용역에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구체적인 조성방안(도입 기능)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항청 관계자는 "다대포항에 이 방파제가 들어서면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 각종 피해가 대폭 줄어들고, 해양수산관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대포항은 태풍이나 이상 파랑 등이 내습할 때마다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 정박 중인 선박들도 인근 항만으로 피항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손실을 입어왔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남·북항대교 연결 영도 '고가도로' 이달 첫 삽

남·북항대교 연결 _ 고가도로 아래에는 가로공원 등이 조성된다.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잇는 영도연결도로 공사가 곧 착공한다.

부산시는 3천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부산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에서 청학동 북항대교 2.44km 구간을 연결하는 영도연결도로 공사를 10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영도연결도로는 199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2004년 북항대교 민자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고가도로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시작돼 그동안 착공에 난항을 겪었다.

부산시는 고가도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영도구청 주관으로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노선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부산시와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합의한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 영도구의회 주관으로 올해 시행된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지하차도(안)에 대한 도로의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지하차도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에 따라 당초안 대로 고가도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08년 7월 8일 이후 중단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5월 6일 재개해 지난 8월 10일 부산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하주차장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항대교의 사업기간 및 절대공기 등을 감안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구간을 3개 공구로 분할해 착공키로 했다. 우선 지장물 철거가 끝난 시점부와 남항대교 접속구간 약 200m 구간에 대해 10월 착공하고 나머지 2개 공구는 12월 착공해 오는 2014년 상반기 북항대교와 동시에 준공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고가도로 구간은 너비 20m 왕복 4차로로 하되 민원해소와 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항대교 시점부부터 봉래교차로까지 900m 평면도로 구간은 현재 너비 20m 도로를 55m로 확장해 500억 원의 사업비를 별도 투입해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17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122면을 갖춘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남항대교 일대, '브릿지 수변테마공원'

부산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일대에 주민 휴식처와 친수공간인 테마공원이 들어선다. 영도구청은 내년부터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하부에 '브릿지 수변테마공원'을 착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영도구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테마공원은 오는 2012년께 완공될 예정이며 총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국비 3억 2천500만 원, 구비 3억 2천500만 원)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유관단체장, 주민대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시범마을추진협의회'를 조직했으며 지난 4월에 주요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아래 5천783m 부지는 현재 공터로 방치돼 있지만 테마공원이 들어서면 이 일대가 놀이마당과 바닥분수, 돗자리 녹색쉼터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또 해변 쪽에는 길이 28m, 폭 9m의 계단식 원형 무대 및 관람석도 조성해 끼 있는 젊은이들이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걷고 싶은 영도'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담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변가를 끼고 태종대 방향으로 난 길이 200m 구간의 보행로를 개선하고 화단, 해안제방 벽화 등을 정비해 '월빙 산책로'로 새 단장한다. 이와 함께 월빙 산책로와 연결되는 절영해안산책로에도 '개나리 꽃길'이 조성되고 경관조명이 설치돼 명품 길로 거듭난다. 한국테크노과학고 인근의 길이 160m 거리에는 높이 3m의 벽화로 채워지는 '패총벽화거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민지 객원기자

용호부두, 해양레저 문화관광 친수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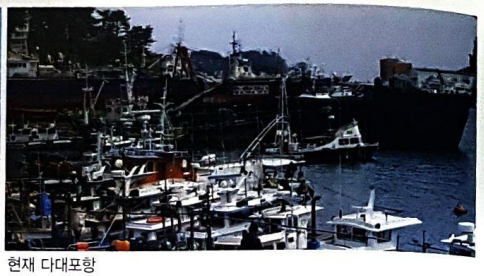
부산 도심에 인접한 중소형 부두인 남구 용호부두 일대가 해양문화관광 시설과 친수공간 등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용호부두 재정비 방안 연구 용역'의 수행기관을 뽑는 공개경쟁입찰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돼 5개월간의 용역작업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항의 대규모 사업인 북항재개발을 제외하고 소규모 무역항을 전면 재개발하는 것은 용호부두가 사실상 처음이다.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은 용역 제안서에서 용호부두 일대의 재개발 방향을 주변 환경과 연계한 해양문화 · 관광 · 레저 기능과 친수공간 쪽으로 잡았다. 한국해양대 용역팀은 "용호부두는 이기대 및 해안 산책로, 오륙도, 광안대교 등 인근 관광자원과는 이질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자원과 연계성 있는 친수공간이 되도록 재개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용역팀은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재정비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투자재원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올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괄연구책임자인 남기찬 교수는 "용호부두를 재정비하는 것은 성격이나 내용 면에서 부산 북항재개발의 축소판과 마찬가지"라며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BPA는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부의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용호부두 기능 전환이 반영되도록 하고, 북항재개발 사업처럼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도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내년 하반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2년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2013년 이후 재정비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현재 용호부두



현재 다대포항

다대포항 문화공간 갖춘 방파제 건설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계획 평면도

태풍이나 폭풍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다대포 항에 외곽 방파제가 친수형 테마공간으로 건설된다

부산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다대포항 외곽 방파제 축조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다대포항에 방파제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은 한국종합기술공사가 맡았다.

해항청은 10개월간의 기본용역에서 방파제 건설 규모 · 위치 등을 도출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2012년 초 착공해 2015년께 완공한다는 목표다. 총사업비는 1500억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 방파제의 부대시설로 친수형 테마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방파제를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로만 짓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여가 선용장과 자연학습장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기본설계용역에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구체적인 조성방안(도입 기능)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항청 관계자는 "다대포항에 이 방파제가 들어서면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 각종 피해가 대폭 줄어들고, 해양수산관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대포항은 태풍이나 이상 파랑 등이 내습할 때마다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 정박 중인 선박들도 인근 항만으로 피항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손실을 입어왔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남 · 북항대교 연결 영도 '고가도로' 이달 첫 삽

남 · 북항대교 연결 _ 고가도로 아래에는 가로공원 등이 조성된다.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잇는 영도연결도로 공사가 곧 착공한다.

부산시는 3천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부산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에서 청학동 북항대교 2.44km 구간을 연결하는 영도연결도로 공사를 10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영도연결도로는 199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2004년 북항대교 민자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고가도로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시작돼 그동안 착공에 난항을 겪었다.

부산시는 고가도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영도구청 주관으로 '남 · 북항대교 연결도로 노선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부산시와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합의한 '남 · 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 · 운영', 영도구의회 주관으로 올해 시행된 '남 · 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지하차도(안)에 대한 도로의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지하차도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에 따라 당초안 대로 고가도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08년 7월 8일 이후 중단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5월 6일 재개해 지난 8월 10일 부산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하주차장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항대교의 사업기간 및 절대공기 등을 감안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구간을 3개 공구로 분할해 착공키로 했다. 우선 지장물 철거가 끝난 시점부와 남항대교 접속구간 약 200m 구간에 대해 10월 착공하고 나머지 2개 공구는 12월 착공해 오는 2014년 상반기 북항대교와 동시에 준공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고가도로 구간은 너비 20m 왕복 4차로로 하되 민원해소와 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항대교 시점부부터 봉래교차로까지 900m 평면도로 구간은 현재 너비 20m 도로를 55m로 확장해 500억 원의 사업비를 별도 투입해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17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122면을 갖춘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남항대교 일대, '브릿지 수변테마공원'

부산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일대에 주민 휴식처와 친수공간인 테마공원이 들어선다. 영도구청은 내년부터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하부에 '브릿지 수변테마공원'을 착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영도구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테마공원은 오는 2012년께 완공될 예정이며 총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국비 3억 2천500만 원, 구비 3억 2천500만 원)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유관단체장, 주민대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지범마을추진협의회'를 조직했으며 지난 4월에 주요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아래 5천783m 부지는 현재 공터로 방치돼 있지만 테마공원이 들어서면 이 일대가 놀이마당과 바닥분수, 돗자리 녹색쉼터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또 해변 쪽에는 길이 28m, 폭 9m의 계단식 원형 무대 및 관람석도 조성해 끼 있는 젊은이들이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걷고 싶은 영도'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담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변가를 끼고 태종대 방향으로 난 길이 200m 구간의 보행로를 개선하고 화단, 해안제방 벽화 등을 정비해 '봉빙 산책로'로 새 단장한다. 이와 함께 봉빙 산책로와 연결되는 절영해안산책로에도 '개나리 꽃길'이 조성되고 정관조명이 설치돼 명품 길로 거듭난다. 한국테크노과학고 인근의 길이 160m 거리에는 높이 3m의 벽화로 채워지는 '패총벽화거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민지 객원기자

저가항공 5년, 국내선 34% 점유

에어부산 부산-김포, 김해-하네다 노선 취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주도하던 항공업계에 지난 2005년 한성항공이 뛰어들면서 저가항공 시대의 막이 올랐다.
2005년 한성항공에 이어 2006년 6월 제주항공이 제주~김포 노선에 취항했고 대한항공이 100% 출자한 진에어가 2008년 7월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이 주요주주로 참여한 에어부산도 2008년 10월 부산~김포, 김해~하네다 노선에 취항했다. 전북 군산에 기반을 둔 이스타항공도 2009년 1월 김포~제주 노선의 운항을 시작했다.
기내 비즈니스 좌석과 불필요한 기내식, 마일리지 제도를 없애는 등 비용을 대폭 절감해 대형 항공사 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저가항공사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면서 국내 수송분담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저가항공사의 국내선 수송분담률은 제주항공이 취항한 2006년 2.2%, 2007년 6.5%로 뛰어올랐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등장하면서 2008년 9.7%로 증가하다 지난해 이스타항공 취항 이후에는 27.4%로 급등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수송분담률은 34%까지 올랐다.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민 3명당 1명은 저가항공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저가항공사들은 이제 눈을 해외로 돌리고 있다. 이미 인천~오사카, 인천~방콕 등 5개 노선을 운항 중인 제주항공은 오는 10월 인천~마닐라, 부산~세부, 인천~홍콩 등 3개 노선의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방콕, 인천~괌 노선을 운항 중인 진에어는 조만간 인천~필리핀, 인천~마카오, 제주~상하이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부산~후쿠오카, 부산~오사카 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에어부산은 오는 12월 필리핀과 홍콩 노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인천~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노선에 취항한 이스타항공도 국제선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저가항공 시장이 급성장하자 외국 저가항공사들이 속속 취항하고 있다. 태국 비즈니스에어항공이 지난 3월 인천~방콕 노선 운항을 시작했으며 아시아 지역 최대 저가항공사인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가 11월 인천~쿠알라룸푸르 노선 운항을 앞두고 있다. 12월에는 태국 저가항공사인 오리엔트타이항공도 인천~방콕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이 2013년까지 나리타공항에 저가항공사 전용터미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데다 일본 2위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가 2011년까지 저가항공사를 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에어부산

'부산홍보관' 관광객들에 인기

부산 서면 도시철도역에 부산시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_ 홍보관을 둘러보는 시민들

도시철도 서면역 1 · 2호선 교차지점 설치

부산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1 · 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에 32.5㎡ 규모의 간이 홍보관을 설치, 부산 시민을 비롯,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홍보관은 시민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으로 부산자랑 10가지, 부산 100경, 부산사람들의 하루, 명품길(갈맷길) 소개 등 부산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시정 소식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낙동강 살리기와 같은 국정 홍보 코너도 마련해 다양한 국정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꾸몄다.
또 홍보관 출입구 안팎에서는 PDP 2대를 통해 부산시 홍보영상물과 인터넷 방송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이밖에 홍보관에는 부산시보를 비롯해 부산시 영어신문 'Dynamic Busan(다이나믹 부산)'과 일본어 신문 'ダイナミック 釜山(다이나미끄 부산)', 잡지 '부산이야기', 부산시 관광안내지도(영 · 일 · 중국어)를 비치하고 있다. 또 노트북 2대를 설치, 부산시 인터넷 신문 '부비뉴스'와 '바다TV'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토 · 일 · 공휴일은 휴관.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버스정보안내기 부산 전역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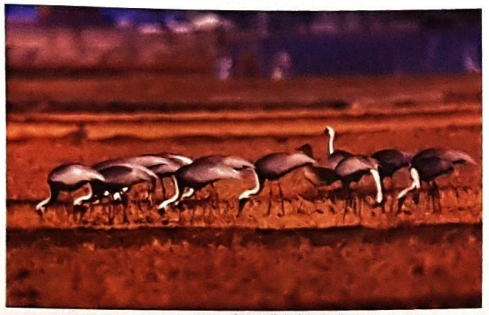
ARS · 스마트폰 이용 가능

부산시는 "종전 일부 지역에서만 설치됐던 BIT(Bus Information Terminal)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종전 BIT는 모두 160대였으나 10월 초엔 모두 510대로 늘어났다. 350대는 새로 도입하고, 2003~2005년 만들어져 구형인 50대를 신형으로 교체, 모두 400대를 설치했다.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전체 2500여개 정류소 중 20%가량에 BIT가 설치된 것이지만 간선도로변과 이용객이 많은 곳에 주로 설치해 사실상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BIT가 없는 정류소의 경우 ARS ☎1588-2002를 이용하면 버스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다.
이 ARS에 전화해 현재 서 있는 정류소 고유번호와 버스 노선번호를 버튼으로 누르면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준다. 예컨대 인제구 거제동 교대앞 정류소에서 휴대폰으로 1588-2002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정류소 표지판에 적힌 고유번호(13003)와 자신이 탈 버스 500번, # 등을 누르면 된다. 또 집에서 나가기 전 버스 도착 시간을 알고 싶다면 버스정보관리 홈페이지(bus.busan.go.kr)로 들어가면 된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서낙동강 본원 국가공원 조성

'부산 국가공원 조성 100만명 서명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부산역 광장에서 100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은 부산지역 시민단체, 학계, 상공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계자 등 2천여명이 함께 했다. 국립공원이 자연환경과 역사 · 문화자원을 지키기 위한 국가지정 보전형 공원이라면, 국가공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대규모 도시공원. 서울 용산공원이 2007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공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 15곳에 국영공원이 있다.



둔치도의 재두루미 월동모습

시민운동본부는 선포식에서 강서구 둔치도 서낙동강 일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둔치도를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면 생태, 문화, 관광, 해양이 어우러진 부산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시민운동본부와 부산지역 16개 구 · 군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약식도 있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산 국가공원 조성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낙동강 둔치도 둘레길

둔치도가 대규모 국가공원이 되면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도시개발이 미래첨단비전을 담게 되어 생태, 문화, 관광, 해양의 국제미래산업도시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축이 되며 이는 부산과 강서지역의 위상을 크게 높이게 된다. 또한 낙동강하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세계적인 생태 · 문화 관광지로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인근에 김해국제공항, 부산신항, 경제자유구역, 을숙도 등이 있어 매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생태연못 전경

중국인 관광객과 함께하는 Tour-Buddy 캠페인

행사공연모습

부산시는 지난달 용두산 공원 광장에서 Tour-Buddy, 등대콜, 관광업계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과 함께하는 Tour-Buddy 캠페인'을 개최했다. '우리는 관광친구, 대한민국 미소국가대표'를 주제로 '중국인과 함께하는 Tour-Buddy 캠페인'으로 결처진 이 행사는 허남식 부산시장, 이근후 부산관광협회장, 이동호 롯데호텔 대표, 노영우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본부장, 부구욱 영산대 총장, 중국 총영사 등의 내빈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올 가을 부산국제영화제, 세계불꽃축제 등 대형 국제행사를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추진했다. 따라서 최근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참가, '중국인 유학생 명예 Tour-Buddy(관광친구)' 위촉식 및 캠페인을 벌였다.

Tour-Buddy란 관광객이 부산에서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들의 친구가 되는것을 의미한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200여명. 이들은 이날 부산시로부터 Tour-Buddy 배지 및 위촉장을 받고 다짐 결의대회를 가진 뒤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앞으로 자국의 관광객을 상대로 친절 환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관광업소 메뉴판의 중국어 표기 참여 홍보, 관광객 가이드 역할 등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절환대 캠페인 관련 회의에도 직접 참석해 부산 관광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각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들의 활동 실적을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 소속 대학에 통보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중국인 유학생 명예 Tour-Buddy 촉발은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간소화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학생이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중국에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발전연구원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120만 시대, 부산의 대응' 이란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급성장하기 시작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47만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부산국제영화제

• 개막작 : 산사나무아래　　• 폐막작 : 카멜리아

영화의 바다로 이끄는 제15회 국제영화제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해운대 PIFF광장 등 5개 극장 36개 관에서 개최, 영화의 축제로 물들여졌다.
세계의 7대 영화제중 하나로 자리잡은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는 67개국 308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올리버스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아오이 유, 탕웨이, 줄리에트 비노쉬 등이 영화제 기간 중 부산을 찾았다.
개막작은 〈연인〉, 〈영웅〉, 〈황후화〉 등 '사극 블록버스터'를 찍는 장이모우 감독의 신작 〈산사나무 아래〉, 폐막작은 한국의 장준환, 태국의 위시트 사사나티엥, 일본의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이 부산을 배경으로 연출한 옴니버스 영화 〈카멜리아〉이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1. 올 영화제 개막작 장이모우 감독의 '산사나무 아래'
2. 갈라 프레젠테이션 참가작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증명서'
3. 한국영화 오늘_파노라마 참가작 이재용 감독의 '여배우들'

부산국제영화제

이 해 원
(주)애드21대표이사
본지편집위원

아시아권 영상문화도시로 부상

21세기의 세계경제는 기술전쟁, 정보전쟁의 시대와 더불어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한다. 이는 그 국가의 상품이 세계문화에 끼치는 영향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인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지역에 커다란 문화적 의미를 가져 왔으며 90년대 후반까지 낙후된 문화산업은 부산이 국제영화제를 유치함에 따라 많은 영화들이 부산에서 찍혀지고 이로 인한 부산에 대한 문화적 관심은 부산시민에게도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도

1996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첫발을 내디딘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이 아시아권 영상문화의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민선시정의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휴식 공간으로서 PIFF(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광장을 조성했고 앞으로 부산이 국제적 영상문화공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산업기지 조성과 영화산업개발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영화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게 됐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을 토대로 부산의 미래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영상산업도 부산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제가 됐으며 영화제가 열리는 매년 10월은 부산 전체가 영화의 물결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 부산의 영상산업은 단순한 영화 상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산업의 부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부산시 정책개발실의 전국산업 연관표에 의하면 부산국제 영화제 개최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 아이템 개발 급선무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격은 경쟁부분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1997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영화제작자연맹(PLAPF)으로부터 국제영화제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한 해 동안 제작된 아시아의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아시아영화의 창구로서, 그리고 새로운 아시아의 신인감독 발굴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젊은 층이 관객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전 세계 어떤 국제영화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젊고 활기찬 국제영화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 자본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사전 영화제작시장인 PPP(Pusan Promotion Plan)의 도입으로 단지 영화관련 축제가 아니라 영화유통시장으로서의 발전을 모색하여 아시아 영화시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 PPP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영화의 제작_배급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아시아 영화에 투자를 원하는 전 세계의 제작자, 투자자들이 PPP에 참여하여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패널과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아시아영화의 합작과 해외배급에 관한 활발한 정보교환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부산국제영화제가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에 가장 중요한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외국과의 합작, 제작자본 유치등과 같은 국내영화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제반요소들을 개선·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PPP는 아시아 영화 발전에 관심을 가진 전세계 영화인들에게 중심적인 만남의 장으로 확고한 위치를 가지게 됐으며 공동제작이나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아시아 프로젝트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투자방법을 제공하고 유익하고 생산적인 장으로 발전해 왔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권의 영화문화를 주도하는 입지를 이미 확보했다. 그 노하우는 우리에게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부산시민과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갈 자산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이템개발로 아시아 영화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 잡길 기원해본다.

조선통신사 뉴욕 코리안 페스티발 참가

뉴욕한인회와 업무협약식

조선통신사 행렬

한일 평화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행렬이 10월 미국 뉴욕에서 재현됐다. 통신사 행렬이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문화재단은 지난 10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코리안 퍼레이드 & 페스티벌 행사에 통신사 행렬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행렬은 150여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공연도 펼쳤다. 부산문화재단과 뉴욕한인회는 지난달 뉴욕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 뉴욕한인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올해 뉴욕한인회 발족 50주년을 맞아 평화 우호의 상징인 통신사 행렬을 세계의 문화 중심지인 뉴욕에서 펼치고 싶었던 것. 부산문화재단 측도 통신사의 평화 이미지와 세계사적인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부산문화재단 강남주 대표이사는 "통신사 행렬 재현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문화교류와 평화 사절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남구, 유엔평화문화특구 각종 기념사업 추진

유엔기념공원

6·25 전쟁 60돌을 맞은 올해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자리한 부산 남구가 세계 최초의 유엔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7월에는 지역 차원의 '부산 남구 유엔평화문화특구' 선포식이 이어지는 등 세계 평화를 향한 부산의 적극적인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유엔평화문화특구에 대해 부산시는 세계 유일의 자유성지를 통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남구는 평화기념관 인프라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유엔평화문화특구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에 평화라는 컨셉트를 낳이 평화특구가 교육특구, 교육센터로 가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유엔기념공원과 연계한 다채로운 평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세국제평화기념사업회 박맹언(57) 공동이사장은 부경대 총장을 맡고 있는 교육수장 답게 '평화를 통한 대학의 국제화'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특히 부경대 대연캠퍼스에는 6천600㎡ 부지에 지상 12층 규모로 국제회의장, 전시 및 자료실, 평화교육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유엔평화교육센터가 2013년 들어선다. 센터는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여러 나라와의 국제교류협력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산 남구는 부경대를 비롯하여 경성대 부산외국어대 동명대 등이 몰려 있는 교육특구로서 낮은 물가, 교통, 자연환경 등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느 도시보다 강점을 갖고 있는 교육산업 지역임에는 분명하다.

김대현 객원기자

생선회맛천국, 자갈치축제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정겨운 삶의 현장 자갈치에서 지난 1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7일까지 부산자갈치축제가 용두산과 자갈치 일원에서 열렸으며, 올해로 19회를 맞이했다.

〈2010년 제19회 부산 자갈치축제 일자별 프로그램〉

일시	무대공연행사	체험 / 참여행사	전시 / 특별행사
13日 (수)	15:00 용신제 – 용두산 17:00 전야제 (물고기위령제) 19:00 뒷풀이	11:00~19:00 (14일~17일) • 자갈치 2종 경기 –고기야 놀자 (맨손으로 활어잡기) –숫~멍게 • 어린이체험장 –워터바이크 –어린이 낚시 –해직 비누방울 –전통활 만들기	11:00~21:00 (14일~17일) • 자갈치수산전시관 (전시관) –자갈치 이모저모 –수산물상식 비교전시관 –청소년생선회요리 시연 및 작품전 • 소망등 달기 • 생선회 맛 천국, 자갈치! –한화 균일 회 판매관 (어패류, 신동아시장 앞) –세계수산물 퓨전요리 시연 • 자갈치 특산물, 기념품 판매
14日 (목)	11:00 즐기자 자갈치축제 (동아리한마당) 14:00 유랑극단 리허설 16:00 길놀이 19:00 개막식 / 불꽃쇼 19:50 개막축하공연 – KNN유랑극단		
15日 (금)	11:00 수산물깜짝경매 (건어물 시장편) 13:00 아지매 한마당 (건어물 시장편) 16:00 자갈치축제, 수산물요리 경연대회 19:00 추억의 쇼쇼쇼!	11:00~19:00 (15일~17일) • 가족체험장–목검꾸미기 –어창 항초 만들기 • 행운의 룰렛을 돌려라! • 실버체험장 –전통탈 만들기 –솟대 만들기	11:00~18:00 (15~17일) • 유람범선 승선체험
16日 (토)	11:00 수산물깜짝경매 (신동아 시장편) 13:00 아지매 한마당 (신동아 시장편) 15:00 장어문어 이어달리기 16:30 동아리한마당 19:00 토요일은 자갈치와 (7080공연 / 토요일의 열기)	13:00~18:00 (16일~17일) • 자갈치 달인 (3종) –회이름 맞추기 (13:00~18:00) –생선회 정량달기 (13:00~14:30) –생선회 젓가락 묘기 (16:30~18:00)	11:00~20:00 (14일~17일) • 그때 그 시절, 먹거리 판매 (쫀드기, 달고나… 등) 12:00~13:00 (13일~16일) • 자갈치 무료 시식회 (복국, 전복죽 등)
17日 (일)	11:00 수산물깜짝경매 (어패류시장편) 13:00 아지매 한마당 (어패류시장편) 16:00 뚝심자갈치아지매 팔씨름대회 19:00 자갈치아지매 선발대회 및 폐막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사업 본격화

동부산관광단지 운동 · 휴양지구(골프장 등 포함)의 용지매매계약이 최근 체결됨에 따라 골프장 등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도사업으로 진행됐던 운동 · 휴양지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운동 · 휴양지구의 관리운영회사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로부터 계약금 75억 원을 납부받고,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부산관광단지 운동 · 휴양지구 사업자인 동부산S&R은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관리운영 특별목적회사(SPC)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를 설립했다. 이 SPC에는 주간사인 오션앤랜드와 앤에스자산관리, 서희건설, 글로벌엔씨, 한국자산신탁, 중앙디자인 및 장원골프엔지니어링 등 7개사가 참여한다.

동부산골프앤리조트는 오는 2011년 2월까지 1차 중도금인 92억 원과 금융사의 지급보증서를 부산도시공사에 제출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한양증권으로부터 골프장 공사에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스(PF) 550억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는 골프장 사업 진척에 따라 기업휴양촌과 골프연습장의 건립 공사 시기를 조절하겠지만, 오는 2015년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동부산관광단지 조감도

동부산관광단지 운동 · 휴양지구(골프장 등 포함)의 용지매매계약이 최근 체결됨에 따라 골프장 등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도사업으로 진행됐던 운동 · 휴양지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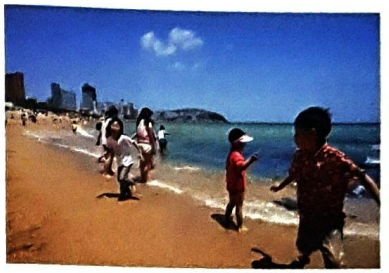
운동휴양지구 개발사업 본궤도 오를 듯

동부산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가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의 본계약이 예정돼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동부산S&R은 전체 토지비를 향후 2년간에 걸쳐 납부할 예정이며, 부산도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운동휴양지구 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산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는 108만8833㎡ 부지에 골프장을 비롯해 골프 빌리지와 기업휴양시설, 익스트림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부산S&R은 지난해 9월 운동휴양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전체 토지비 15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시공사를 확정하지 못해 이행보증금 납부와 본계약 체결을 한 차례 연기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동부산관광단지는 테마파크지구와 운동휴양지구, 도심레저지구, 해안지구의 4개 지구로 나뉘진다. 현재 테마파크지구(50만㎡)는 CJ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하고 있고, 도심레저지구와 해안지구는 4개 우선사업자가 개발 방향을 놓고 도시공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해운대구 · 부산역 협력체제구축, 관광상품 개발 나섰다!



해운대백사장

부산역 본수대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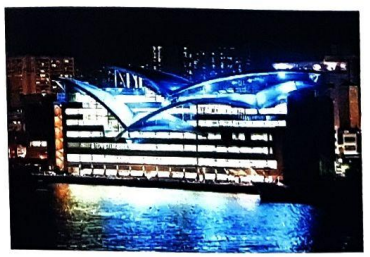
부산 해운대구와 코레일 부산역이 오는 11월 KTX 2단계(부산~대구 124.2㎞) 완전개통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

해운대구와 부산역은 최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갖고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부산역에 해운대지역 관광 안내판을, 해운대해수욕장에 KTX 열차시간 안내판을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역 관광객에게 해운대해수욕장 등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고, 해운대지역 관광객에게는 KTX 시간 등을 홍보해 이용률을 늘이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또 ▷관광안내책자 공동제작 배부 ▷열차시간표 제작 때 해운대지역 관광지 소개 ▷해운대지역 관광지에 KTX 관광상품 홍보 등에 합의했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역 내 호텔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부산 자갈치, 최첨단시장 탈바꿈

'u-마켓 포털' 구축, 상품정보 · 상점위치 · 주차시설 실시간 인터넷 서비스



부산 전통시장인 자갈치시장이 내년부터 자갈치시장의 상점위치나 상품정보 등을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도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올해 15억원을 들여 부산 자갈치시장과 광주 양동시장, 서귀포 매일시장 등 3곳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구축' 시범사업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IT기술을 활용한 'u-마켓 포털'을 구축해 내년부터 자갈치시장등 3곳 전통시장의 상점위치, 시장정보, 고객관리 등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u-마켓 포털'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통용 가능한 전통시장 포인트 카드를 발급하고, 단골고객 행사안내 및 할인쿠폰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대형마트 수준의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중구 대청로, '부산상징가로' 조성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상징가로'가 조성될 대청로

부산의 근대역사와 문화, 생활자산 등이 산재해 있는 대청로가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가로 조성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의 근대역사 문화 자산이 산재해 있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에서 서구 부민동 임시수도기념관까지 길이 1480m, 너비 25m의 대청로에 '부산상징가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상징가로인 광화문과 같은 개념으로 조성될 부산상징가로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착공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 · 시비 2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부산상징가로를 ▷문화의 거리(부산우체국~부산근대역사관 · 0.48㎞) ▷희망의 거리(부산근대역사관~보수사거리 · 0.52㎞) ▷젊음의 거리(보수사거리~임시수도기념관 · 0.48㎞)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주제가 있는 특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문화의 거리에는 주변의 40계단테마거리 광복로시범가로 백산기념관 등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초량왜관 복원과 함께 일본인거리(가칭)도 조성할 계획이다. 희망의 거리에는 인공폭포광장을 설치하고 책방골목과 부산근대역사관 등을 테마로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하는 상징물 등을 조성하게 된다. 젊음의 거리에는 보수천 복원과 동아대 부민캠퍼스와 연계한 광장과 공원 등을 조성해 젊은이들이 찾고 싶은 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부산시는 또 현재 4m 안팎인 대청로의 보도를 양쪽 모두 1.5m가량씩 넓혀 부산상징가로에 걸맞는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김대현 객원기자

서부산 슬로투어, 관광지로 뜬다!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속에서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보내며 느림을 추구하는 '슬로투어' 코스인 사하구 감천동 태극도마을, 무지개 공단이 서부산의 새로운 관광지로 뜨고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슬로시티 협력도시에 가입한 부산시는 서부산 중심 슬로투어 상품(1박2일)인 '에코도시락(Eco 都市樂)'을 선보여 사람들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에 식상한 도시인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에코 도시락은 부산시와 한국슬로시티본부, 여행사 하나투어 등이 협력해 만든 신개념 관광상품. 지난 6월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인 1박2일 일정의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 감천동 태극도마을, 낙동강 에코센터, 아트팩토리인다대포, 아미산 전망대, 자갈치시장을 잇는 코스로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 누리마루와 범어사 투어도 포함된다. 부산시에서 차량과 체험비용 등을 지원해 비용이 인당 6만9000원으로 저렴하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세계초일류 국제복합운송회사 은산해운항공(주)

2010년 제15회 바다의 날 산업포장 수상

1993년 설립된 은산해운항공(주)은 부산에 본사를 둔 향토 기업으로서 길지 않은 시간에 국내 메이저 포워딩(Forwarding:무역에서 운송주선인)업체로 부상하여 매년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영업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은산해운항공은 2006년 매출액 700억원, 2007년에는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여 지난 해 부산광역시 선도 기업(50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창업 이후 급속한 회사 성장에 맞추어 지난 2002년 경상남도 양산시 지방산업 단지 내에 대지면적 10,000㎡ 창고면적이 8,300㎡인 대형 물류 CY/CFS(컨테이너 야드 및 컨테이너 화물적입 · 적출장)인 양산컨테이너포장(주)를 설립하여 원스톱 물류 처리가 가능 해졌으며, 2008년 신항에 새롭게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부산 북항과 내륙지역은 양산터미널에서 신항과 항만 인접지역은 이곳 신항터미널에서 모든 물류를 분담하는 TWO-TOP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2009년 12월 17일에는 정부로부터 "종합물류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 5월 31일 제15회 바다의 날에는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 종합물류회사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고객만족 서비스'를 신앙처럼

대표이사 **양 재 생**

은산해운항공(주)의 이와 같은 성공비결은 '고객만족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바늘부터 이삿짐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실어 나르는 물류회사'라는 회사 소개는 이미 유명하며, 항상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과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 정신은 은산해운항공(주)에게는 신앙과 같다. 창사이래 한결같이 양재생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직원들과 사회에 환원하는 기본적이지만 한결같기가 힘든 것들을 구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초일류 물류회사를 꿈꾸는 은산해운항공(주)의 경쟁력인 것이다.

이민지 객원기자

부산시티투어 도심순환코스

"부산의 옛정취와 쇼핑의 즐거움을 느낄수 있는 도심순환 코스"

골드테마거리

범천동에 위치한 골드테마거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귀금속 상가거리다. 주변에는 백화점과 중앙시장, 평화시장 등 재래 시장들도 가까워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매년 10월이 되면 귀금속 상가 거리 축제가 열린다. 귀금속 세일, 경품 행사와 함께 보석, 시계류 무료 감별 및 세일 행사가 벌어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좌천동가구거리

1950년대부터 형성된 부산시내 가구점의 발상지 좌천동 가구거리! 각양각색의 자개가 박힌 이곳의 가구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 상품으로 사랑받고 있음은 물론, 드라마 〈천만번 사랑해〉, 〈겨울새〉 등의 촬영 소품으로 활용될 만큼 국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면

부산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서면! 다양한 쇼핑공간이 있어 자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값싸고 푸짐한 먹자골목에서부터 분위기 있는 고급레스토랑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재래시장이 인근에 있어 품질 좋은 생활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광복로

오랫동안 부산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사랑받아온 광복로! 현재 광복로는 패션 1번가로 불리는데, 1백여 개의 패션매장은 물론 다양한 액세서리와 귀금속 등 다양한 유행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어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자갈치시장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관광명소 자갈치 시장! 넉넉한 인심의 자갈치 아지매는 물론,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회까지! 부산의 활기찬 매력이 살아 숨쉬는 어패류 종합시장이다.

해운대 · 태종대 야경코스

"시티투어버스로 돌아보는 부산"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광정보와 함께
부산관광을 시티투어버스로 시작하세요!

태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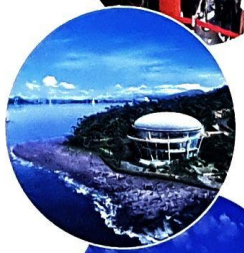
수려한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환상적인 OCEAN VIEW! 영도해안을 따라 9.1km의 최남단에 자리잡고 있는 태종대는 암벽 난간에 위치한 부산 제일의 전망대와 등대를 통해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다.

송도해수욕장

부산에서 제일먼저(1913년) 개장한 해수욕장이다. 예부터 잔잔한 파도와 얕은 수심, 상아빛 모래밭이 유난히 빛나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렸던 곳이다. 2000년부터 5년여 간 정비사업을 펼쳐 즐거든 백사장을 확장하고 분수대 등을 설치하면서 해변공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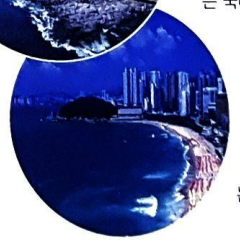
PIFF광장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친구',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PIFF광장은 남포동 극장가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데, 광장 중심에 새겨진 국내외 유명 영화인들의 핸드 프린팅은 영화의 메카 PIFF광장의 빼놓을 수 없는 명물! 부산국제영화제 개봉관이 밀집해 있어 매년 가을이 되면 영화제의 열기를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다.



누리마루

세계의 정상들이 만난 세상의 꼭대기라는 의미를 지닌 APEC누리마루 하우스!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기념비적인 장소라는 의미 이외에도, 동백섬의 울창한 송림과 해운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주변 경관 때문에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는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는 기념관 및 국제회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고급호텔, 음식점들이 밀집된 한국 최고의 휴양지이다. 1km가 넘는 긴 해안가에는 바다축제를 비롯한 연중 다채로운 문화 축제가 열린다.

해운대 · 태종대 야경코스

광안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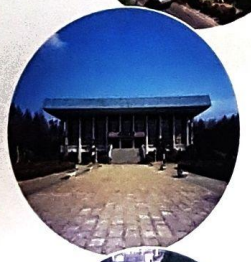
부산 제일의 랜드 마크 광안대교! 바다 위 보석처럼 빛나는 명품 브릿지 광안대교는 국내 최초의 해상 복층 현수교이다. 10만 개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LED 조명 불빛이 만들어내는 빛의 파노라마는 1년 365일 날마다 새로운 추억과 낭만을 선사한다.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야영 체험과 도자기 체험,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산최대의 인공암벽장을 마련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부산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금련산 정상에 위치한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은 야경을 감상하기에도 안성맞춤인 동시에, 부산 유일의 천문대를 통해 밤하늘을 관측할 수도 있어 부산시민의 휴식 장소로 크게 사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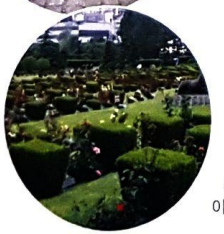
달맞이길

봄이면 흐드러지게 만개한 핑크빛 벚꽃길이 펼쳐지고, 밤이면 달빛따라 걷는 해안 산책길 문탠로드가 이어지는 달맞이길! 정월 대보름, 이곳에 위치한 해월정에서 사랑을 약속하면 평생 사랑이 이루어 진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부산박물관

멀고 먼 선사시대부터 삼한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산 지역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살아 숨 쉬는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만나보자.



UN기념공원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 한국전쟁 UN참전군 전사자의 넋이 잠들어 있는 UN기념공원 내에는 UN참전비와 각국 전사자들의 묘, 아름다운 조각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을숙도 자연생태 코스

"서부산의 절경과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을숙도 자연생태코스"

암남공원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암남공원! 이곳에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할 수 있는 해안산책로와 수심이 깊지 않아 낚시하기 좋은 낚시터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다대포해수욕장

부산의 6대 해수욕장의 하나인 다대포해수욕장! 이 곳 갯벌에는 여러 가지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인기가 많다. 또한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에는 다대포 객사, 몰운대, 윤공단 등 문화유적지가 많으며, 세계 최대의 바닥분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낙조분수는 관광객들의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

아미산전망대

백조 무리가 새하얀 목화송이처럼 점점이 갯벌에 앉아 있는 모습이나 도요새 떼가 하구 사주를 날아오르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탐조 장소, 아미산 정망대! 그밖에도 발아래 낙동강하구 모래섬으로 이루어진 삼각주 지형과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현상을 한눈에 관찰 할수 있다.

을숙도에코센터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을숙도 철새공원을 보전 · 관리하고, 자연생태를 전시, 교육,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인 을숙도 에코센터! 그 밖에도 낙동강 하구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상영을 하고 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reamwiz.com)

천만인의 부산아쿠아리움

부산아쿠아리움 1천만 관람객 돌파기념 감사 특별전 (9/1~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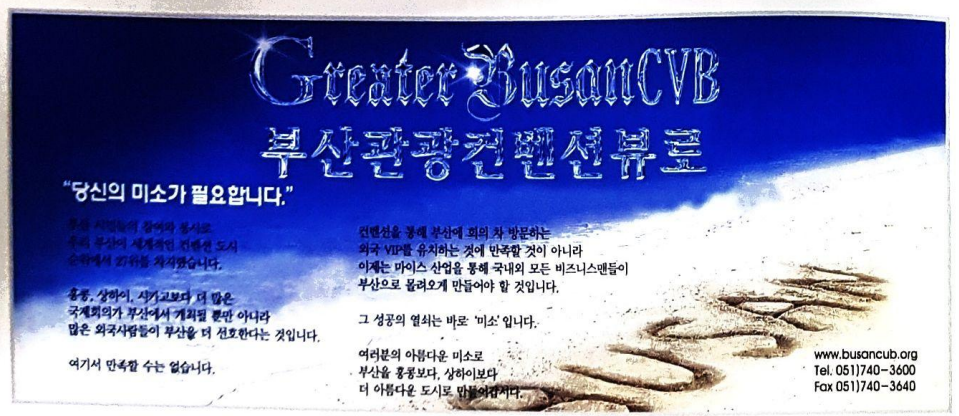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부산아쿠아리움 천만돌파를 축하하며 일본 오아라이수족관에서 기증한 걷는 물고기 '성대'를 바라보고 있다.

부산아쿠아리움은 오는 11월 23일까지 1천만 관람객 돌파기념 감사 특별전 "천만인의 부산아쿠아리움"을 펼친다. 이번 감사 특별전에서는 부산아쿠아리움의 천만돌파를 축하하여 일본 오아라이수족관에서 기증한 일본 물고기 10여종 100여 마리를 전시하는 '오아라이의 바다를 보다' 특별전시와 함께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함께한다.

매화꽃 아래 펼쳐진 일본 전통 정원의 모습으로 꾸며진 '오아라이의 바다를 보다' 특별 전시존에서는 점수구리(Yellow guitarfish), 전자리상어(Japanese angelshark) 등 일본 인근해역에 살고 있는 10여종의 바다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서는 오아라이수족관에서 기증한 1미터 길이의 개복치 박제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오아라이의 바다를 보다' 특별전시와 함께하는 부산아쿠아리움의 감사캠페인 '천만인의 부산아쿠아리움'은 오는 11월 23일까지 계속되며, 천만인 돌파기념 다양한 경품이벤트도 진행된다. '천만 돌파 축하의 벽' 이벤트를 통해 축하메시지를 남겨주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일본왕복승선권, 국내항공권, 의류상품권, 건강음료세트를 증정한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추억의 사진전'에서는 부산아쿠아리움 9년의 역사와 함께했던 사진을 공모, 연간회원권, 패밀리레스토랑 식사권도 증정한다. (문의 : 051-740-1700 / www.busanaquarium.com)

이호영 기자(tourbusan@daum.net)



KTX타고 '영화의 바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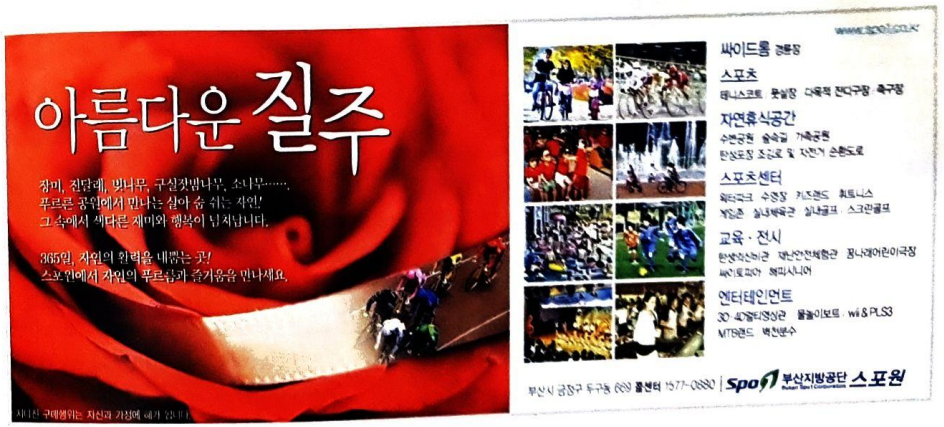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부산국제영화제(PIFF) 손님맞이 한창

코레일 부산역(역장 양운학)은 '10.7(목)부터 10.15((목)까지 개최되는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참여를 위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영화인 및 여행객을 위한 안내준비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10.7(목)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특별열차(산천)를 이용한 원로영화인 200여명은 부산역 3층 맞이방에서 열린 환영식에 부산역장을 비롯한 PIFF관계자들의 친절한 영접안내와 환영행사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재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KTX 중심의 저탄소녹색 네트워크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지난 4월 1일부터 순수국내기술로 제작된 KTX 산천을 운행하였으며, 11월1일에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호영 기자(tourbusan@daum.net)



부산시,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유치 총력전

올해 50만명, 2012년 100만명, 2015년 120만 넘을 것

지난 8월부터 정부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발급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부산시가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주변 경쟁국을 비롯 각도시간 유치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중국 관광시장을 선점하고, 부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주재 '중국인관광객 유치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항 · 여객 터미널 등 중국어 안내원 확대배치 할 듯

이에 따라 시는 금년에 유치목표를 당초 37만명에서 50만명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2012년까지 100만명까지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유치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공항과 역, 터미널 등 주요 관문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에 중국어 안내원을 현행 5개소에서 내년에는 국제여객터미널 등 9개소를 추가로 확대 배치하고, 부산역관광안내소, 노포동 터미널을 확장 ·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명예 투어버디를 1,000명 선발하여 관광객 환대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국제크루즈터미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출입국 심사장 공간을 늘려 출입국 심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교통 · 쇼핑 · 숙박 · 관광지 이용료 결재기능을 1장의 카드에 탑재한 부산관광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관광안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등대콜기사 중국어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비반 운영, 관광안내인력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늘려나가고, 여행사와 중국어 안내인력이 직접 중계할 수 있는 온라인가이드뱅크 구축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중국인이 선호하는 전문음식점 육성과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인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 식당 123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지도와 시설 보완을 유도하고, 차이나타운내 한중문화 관광센터에 중국전문식당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며, 권역별 맛지도를 제작하여 음식점을 소개하는 등 음식관광을 활성화 해나갈 예정이다.

넷째, 또한 쇼핑관광에 있어서는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련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확대하고, 내년 1월에 부산그랜드 세일을 실시하는 한편, 쇼핑인증제 도입, 사후면세점 확대 등을 통하여 쇼핑을 촉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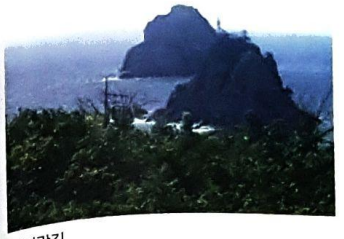
다섯째, 국내외 광역관광협의체와 공조하여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내륙도시 등 신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며, 거가대교, KTX, 여수엑스포, 불꽃축제 등을 상품화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 부산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시는 물론 관련업계가 각 분야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힘을 모아서 목표한 2012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100만 시대를 반드시 열겠으며 2015년에는 120만명을 넘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오륙도에서 강원고성 통일전망대까지 '해파랑길' 탄생

꽃정원, 숲길, 마을길, 해안도로 따라 688km 탐방로 길



해파랑길

부산시 남구 용호동 오륙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지정한 동해안을 따라 걷는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인 '해파랑길'의 시발점으로 지정되었다. '해파랑길'은 문광부에서 지난달 15일 동해의 아름다운 해안을 부산용호동 오륙도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따라 걷는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다. 이 길은 동해안의 숲길, 마을길, 해안도로를 잇는다.

해당화꽃이 피어난 곳에 저멀리 오륙도가 아련히 보이고 있다.

'해파랑길'은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르른 바다색인 '파랑'과 합께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 소리를 벗 삼아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길의 특징은 아스라이 보이는 북녘 땅 통일기원길, 동해안 비경을 담고 있는 관동팔경길, 화랑의 기상과 이야기를 찾는 화랑순례길, 동해의 시작. 유라시아의 탐방 동해아침길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베스트5로 부산은 오륙도~송정해수욕장(24km)동해아침길, 경북경주 봉길해수욕장~포항양포항(23km)화랑길, 삼국유사길, 경북강구항~고래불해수욕장(41km)푸른바다길, 강원도 강릉항~양양 광진리해수욕장(27km)석호길, 강원도고성송지호~화진포(25km)까지를 통일염원길로 전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볼거리가 풍성하게 만든다.

'해파랑길'은 오륙도에서 출발해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꽃정원, 숲길, 마을길, 해안도로 등 688km를 잇는 탐방로로 2014년 완성되며, 안내표지판과 편의시설,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 북 등 시설이 완료되면 7번국도와 함께 '해파랑길'이 국내 최장거리 해안 탐방로가 된다.

이곳 오륙도에 일제 강점기 때 구축된 지하 포진지도 복원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맞는 편의시설과 조경시설을 갖춘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소를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부산 알리기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김태환 객원기자

2010년도 관광안내소 현황

안내소	주 소	전화번호	근무시간
김해공항 국제선	강서구 대저2동 2350	973-2800	09:00~18:00
김해공항 국내선	강서구 대저2동 2350	973-4607	08:00~21:00
부산역	동구 초량3동 1202	441-6565	09:00~20:00
국제여객 부두터미널	중구 중앙동 4가 15-3	465-3471	08:00~18:30
노포동	금정구 노포동 133	502-7399	09:00~18:00
벡스코	해운대구 우동	740-7339	09:00~18:00
창선	중구 창선1가 1	242-8253	09:00~18:00
부산외국인서비스센타	동구 초량1동 569-2	441-3121	09:00~18:00
부산종합안내소	중구 남포4가 18-2	253-8253	09:00~20:00

파라다이스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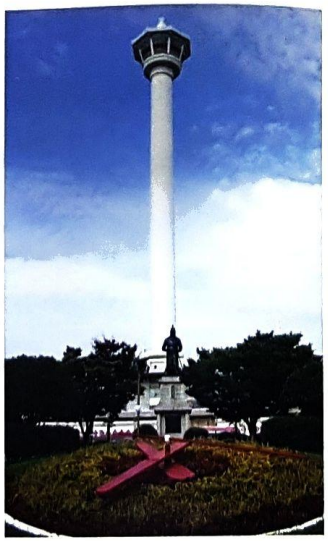
PARADISE HOTEL
BUSAN

러브홀릭 패키지

쌀쌀한 바람에 따뜻한 사랑이 그리운 계절, 거울을 맞이하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로맨틱한 패키지 'loveholic' 패키지를 출시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총 3가지 타입으로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그제큐티브 룸에서의 1박과 다양한 특전을 포함하여 A타입, A타입에 이태리식당 '꼴라비니' 2인 디너를 추가하여 B타입, B타입에 2인 스파와 벅트리트먼트(₩440,000 상당) 포함하여 C타입으로 나뉜다. A, B, C타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특전으로는 객실 내 와인과 쿠키, 과일서비스가 1회 제공되며 '쁘띠빠라디'에서 수제초콜릿을 맛 볼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신관 18층에 위치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2인 조식과 커피, 차, 쿠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마음껏 칵테일과 카나페 서비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노천온천과 야외수영장, 사우나 무료 이용, 호텔 내 레스토랑 이용 시 10% 할인, 부산아쿠아리움 20%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파라다이스호텔 제공

(주) 두모씨앤씨 부산타워



용두산공원 부산타워는 6.25전쟁후 복구에 참여했던 Cliff & Marilyn Strovers 씨가 당시 부산에 주둔했던 미 44공병대에 1953년 11월부터 1954년 12월까지 근무하면서 당시로서는 극히 드문 35mm Argus C3 카메라로 찍은 칼라사진들을 부산타워 2층 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으로 상설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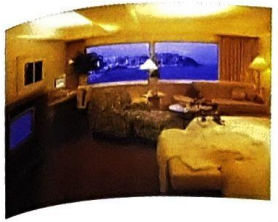
금번 "칼라사진으로 만나는 1950년대 부산" 상설 기획전은 클리프씨가 부산타워에 기증한 200여점의 소중한 사진들로 과거 남포동, 광안동, 부산항, 노포동, 청룡동, 범어사, 수영천, 용호만, 송도, 자갈치시장, 유엔묘지 인대, 메리놀병원 기공식 등 1950년대 우리 부산의 모습과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부산시민은 물론 내외 관광객들에게 당시의 추억을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해운대그랜드호텔 www.grandhotel.co.kr 예약문의_051.740.0114

해운대, 그 곳에 가면 바다정원이 펼쳐진 특급 호텔, 해운대그랜드호텔이 있습니다!

- 총 320개 객실 (프레지덴셜 스위트 / 로얄 스위트 / 비치그랜드 등)
- 해운대,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레스토랑
  (티파니 뷔페 레스토랑, 중식당 만리성, 양식당 퍼스트클럽, 펍바 파비앙, 제과점 델리, 로비라운지 펄)
- 부산 최고, 최대 규모의 연회장 및 전문 연회서비스 (그랜드볼룸, 컨벤션홀, 중원, 동원, 서원, 남원)
- 세계적인 온천 사우나 그랑스파 / 대수영장 그랑풀 / 골프장 이글 / 휘트니스센터
- 옥내외 1천여대 동시주차 / 여성고객과 대형차량을 위한 옥외전용주차장 별도 운영
- 부산 유일의 정통전용극장



부산웨스턴조선호텔 www.echosunhotel.com 예약문의_080.997.9000

새롭게 단장한 객실과 시설 아름다운 전망과 최고의 서비스

- 스타우드 호텔 & 리조트의 웨스틴 체인 호텔
- 해운대를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
- 비즈니스맨을 위한 이그제큐티브 객실과 전용 라운지
- 동시통역 시스템을 갖춘 대연회장과 바다가 보이는 7개의 중/소연회장
-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
- 새로게 단장한 290개의 최고급 객실
- 전 객실 초고속 인터넷 라인 구비
- 크리스탈 피아노가 있는 라운지를 포함한 6개의 최고급 레스토랑
- 피트니스센터/수영장/천연 라듐 온천

파라다이스호텔부산 www.paradisehotel.co.kr 예약문의_051.742.2121

비지니스와 휴양을 동시에 즐길수 있는 곳 파라다이스호텔부산

- 세계 리딩 호텔(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의 회원호텔(부산 유일)
- 2006년 4월, 259실의 본관 객실 전면 새단장
- 전용 라운지를 갖춘 4개 층의 이그제큐티브 층 운영
- 한중,일,이태리 식당을 포함한 11개의 레스토랑과 라운지
- 바다가 보이는 노천온천을 비롯한 헬스&스파 시설
- 총 540실의 해운대 최대규모(본관 259실 / 신관 281실)
-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객실 발코니(해변측 객실)
- 100Mbps급 유선 인터넷 & 54Mbps급 무선 인터넷 구비(전객실 및 로비, 연회장)
- 대·중·소 연회장 및 전용 세미나 룸을 갖춘 연회장 시설
- 면세점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관광객을 위한 부대시설

부산롯데호텔 www.busanlottehotel.co.kr 예약문의_051.810.1000

국내 최대규모 초특급 비즈니스 겸 엔터테인먼트 호텔

- 170m 높이의 전국 최고층 호텔이며, 단일 건물 최대 객실 804실 보유
- 8개 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최대 2,500명 수용 대연회장 등 11개 중·소연회장 및 12개의 최고급 레스토랑 운영
- 사통팔달의 부산교통의 요충지(공항, 부두, 역 10분, 벡스코 20분 거리)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별도의 비즈니스 전용층과 초고속 유·무선인터넷 구축
- 동양 최대 규모의 면세점과 백화점, 멀티플레스 영화관 등 복합 쇼핑타운 조성

노보텔 엠버서더 부산 www.novotelbusan.com 예약문의_051.743.1234

비즈니스 및 리조트 시설을 고루 갖춘 국제적 수준의 노보텔 엠버서더 부산

- 새로운 침대로 더욱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356개 객실
- 24시간 피트니스 센터, 실내수영장
- 24시간 이용 가능한 비즈니스 센터
- 레스토랑-스테이크 & 해물요리 레스토랑, 뷔페, 찹스틱스 & 피자
- 서비스-아기보모 서비스, 렌터카 및 리무진 서비스, 세탁 서비스
- 객실 내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
- 천연 온천 사우나
- 그랜드 볼룸 및 다양한 연회장과 연회 서비스센터
- 바-머피스, 디스코텍 & 클, 피아노 라운지 & 바

호텔아쿠아펠리스 www.aquapalace.co.kr 예약문의_051.756.0202

전 객실을 바다를 조망토록 호화롭게 꾸며지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 광안리 해변의 정취와 야경 그리고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바다를 아름답게 조망할수 있는 객실은 최신시설, 완벽한 방음, 방염, 방재 설비 그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잊지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한다. 객실 78개는 Sea Side에 위치하고 있다.
- 지하 816m에서 뽑아올린 심층 암반해수는 38℃온천수이며 80여종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 4~9층까지는 100m의 바다슬라이드와 파도풀, 유스풀, 비데풀 수영장등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 파트호텔이다.
- 환상적인 웨딩홀, 대·중·소 연회실은 각종 세미나 개최에 최적의 환경이 제공되고있다.
- 지하철 2호선 광안역에서 5분거리

사라진 용미산을 아는가?

조 재 완
(사)아시아태평양관광학회
부설연구소장

1885년 부산 용두산 동측 해안가로 용미산이 자리잡고 있었다. 용미산 아래 부둣가에 부산해관 청사가 신축될 무렵, 자갈치시장일대가 1890년대에는 남빈 해수욕장이었으며, 중앙동 부두 물양장에서는 해초를 말려 수출하고 있었다. 제3대 해관장으로 헌트가 중국 리훙장의 신임아래 부임하여 부인과 외동딸 리즈와 같이 해관관사(현 대동아파트 부근)에 살았다. 이때 양산에서 온 서생인 권순도를 집사로 두게 되었는데, 헌트의 외동딸 리즈는 열아홉살로 권순도라는 서생에게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다. 집요한 리즈의 구애 끝에 권순도도 마음이 끌리어 위험한 사랑을 하게 되었고, 리즈의 임신이 발각되어 결국 리즈와 권순도는 사랑의 도피로 양산으로 가게 되었으나, 헌트는 화가나 외교관의 특권까지 이용하여 그들을 잡아들였다. 헌트는 부산에서 해관장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총괄하는 총세무사가 되려는 야심을 접고 결국 중국으로 가족과 떠나면서, 이들의 사랑은 끝나게 되었다.

또다른 로맨스로는 의료선교사였던 찰스 어빈과 양유식의 사랑이야기를 들 수 있다. 북미장로회 소속으로 1893년 부산에서 생곡교회를 설립하고, 감만동에 국내 최초로 나병원을 설립하는 등 왕성한 선교활동을 해왔으며, 어빈부인도 남편을 도와 활발한 선교와 문화활동을 하였다. 1911년 어빈 부인이 이혼하고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고 난 뒤 양유식과 재혼하였다. 양유식도 어빈과 함께 호사를 누렸는데, 결혼 후 20여년이 지나 폐결핵에 걸려 사망하자 어빈은 날마다 무덤에 꽃을 바치며 죽음을 애통해 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용미산을 둘러싸고 개화기에 피어난 리즈헌트와 권순도, 찰스어빙과 양유식의 사랑이야기는 엄연한 실화이자 기록으로 남아있다.

나가사키는 푸치니의 상상만으로 창녀와 미 해군장교의 사랑이야기로 각색하여 나비부인이라는 세계적인 오페라를 만들었다. 부산은 이미 있는 사실조차도 오페라로 만들 문화적 토양이 없는 것일까. 북항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개발할 것인가. 그래도 일본노선이나 중국노선조차 없던 몇 년 전에 세계적인 크루즈를 이용하여 먼 태평양을 건너온 그들에게 콘테이너 미로놀이를 언제까지 시킬 것이며, 냄새나는 부둣가를 밋밋하게 거닐게 할 것인가.

오늘 부산에서 크루즈 노선이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부산항 앞바다에서 북항을 바라볼 때, 푸른 잔디와 해송 숲이 펼쳐지고, 열린 수변공간에 지역주민들이 저마다 가족이나 친지와 나와 즐겁게 여가를 지내고,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가운데, 맨발로 잔디를 밟으며 오랜 바다생활 울렁임을 달랠 수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기 전까지 사라진 용미산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우리문화를 알리는 민간외교관, 호텔리어

유 영 준
호텔리어
호메르스호텔 총지배인

관광은 주역의 풍지편 "관국지광 이용빈우왕(觀國之光 利用賓于王)"에서 觀國之光의 '관'과 '광'을 따서 觀光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외국이나 타지방의 아름다운 경치와 문물을 돌아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관광은 관련산업의 발달과 함께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1960년대 초 관광사업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당시 정부는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편으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관광호텔 기자재를 면세로 들어오게 하고,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였다. 60년대 후반 한일국교정상화이후 일본인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한국관광은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1970년 우리나라 외래관광객수가 17만3천명이였는데, 지난 해 2009년에는 781만7천명으로 약 45배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오일쇼크, 남북한 관계, IMF경제지원, 세계금융 위기, 싸스 등 여러가지문제로 인하여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렀고, APEC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치렀다. 금년 11월에는 'G20국가정상회의'를 의장국으로 개최하게되어 OECD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필자는 호텔리어로서 관광에 종사하면서 굴뚝없는 산업, 관광달러 획득과 민간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기반이 부족했던 시대에 최첨단을 지향하며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해왔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가졌어도 진정한 마음의 서비스가 없으면 마치 기름을 치지않은 기계와 같아서 오래 지속될 수가 없게 된다. 한국인의 정이 깃든 손님맞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친절서비스는 우리민족의 경쟁력이 되고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에서 축제란 명목으로 한해동안 1,170건에 달하는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 축제를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나타낼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이벤트로 정비하여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킨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우리 부산의 가장 성공적으로 손꼽히는 축제는 제15회 PIFF부산국제영화제와 광안리에서 펼쳐지는 제6회 부산세계불꽃축제이다. 10월에 개최되는 이들 축제는 해마다 외래관광객 유치가 늘어나는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 부산의 발전상을 스토리텔링형식으로 펼치는 불꽃축제는 바다위에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나의 장엄한 무대를 연출한다. 올해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부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남을 배려할줄아는 넉넉한 마음과 떠난자리가 깨끗한 부산시민의 질서의식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감동이 아닐까?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앞두고 다시한번 관광부산, 관광한국의 민간외교관이 되어 아름다운 우리문화를 알리고 관광손님맞이에 마음을 열어야할 때이다.

부산과 빛의 관광

이 철 형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觀光)의 어의(語意)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관광은 빛을 본다는 뜻이다. 빛이란 빛나는 볼거리, 자랑거리, 귀한 것 등을 일컫는데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역사유적, 전통문화와 각종 이벤트 등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관광대상 또는 관광자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오늘날에 와서는 빛나는 것을 만들어 볼거리로 제공하는 사례들이 빛의 대명사로 불려지곤 한다. 빛 즉, 光은 관광을 성립시키는 관광객, 관광사업과 더불어 관광자원에 해당되는데, 관광자원의 많고 적음이, 그리고 내용이 훌륭하냐의 여부가 관광산업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자원 중에서도 시각에 호소하는 빛과 빛을 발하는 자원은 인간의 다른 감각인 청각이나 촉각, 미각이나 후각에 비해 훨씬 호소력과 기억력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부산에는 최근 빛과 관련한 특출한 자원들이 등장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부산은 현대적인 화려한 불빛과 오랜 기간 부산의 삶을 책임진 불빛이 공존하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밤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해운대 카페거리에서 바라보는 광안대교와 해변의 불빛이 부산의 경제적 성장과 현대적인 빛이라면 감천항과 원도심 주변 일대의 빛은 우리네 삶의 빛이라고 할 수 있다. 광안대교의 야경은 일몰과 함께 현란한 조명등으로 인해 해변과 육상의 건물 등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일대 장관을 연출하고,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 자리잡은 꿈의 낙조분수는 그 규모와 변화무쌍한 조명으로 인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고 이미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된 세계적 관광거리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외에도 이런 부산의 다양한 빛을 소개하고자 부산 밤의 광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황령산 봉수대를 비롯하여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관람할 수 있는 명소 중에서 야경관광명소 12選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부산의 밤을 관광상품화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빛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는 '빛 보기'의 전형은 매년 10월 하순에 광안리 해변에서 연출되는 불꽃축제를 손꼽을 수 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끔 연출하는 부산세계불꽃축제는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확고한 위치에 있다.

또한 부산은 그간 지형적 특성상 겨울축제가 없었지만 최근 광복동 일원에서 개최되는 부산트리축제 그리고 남항과 용두산공원 등을 중심으로 부산항 빛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빛을 주제로 한 관광 비수기 부산의 새로운 볼거리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부산이 곳곳에 산재한 부산다운 '빛'을 발굴하고 다듬어 상품화를 시킨다면 부산은 밤에도 볼거리가 풍부한 도시, 아름다운 빛의 도시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컨벤션과 전시, 공연, 이벤트의 중심도시인가?

김 비 태
부산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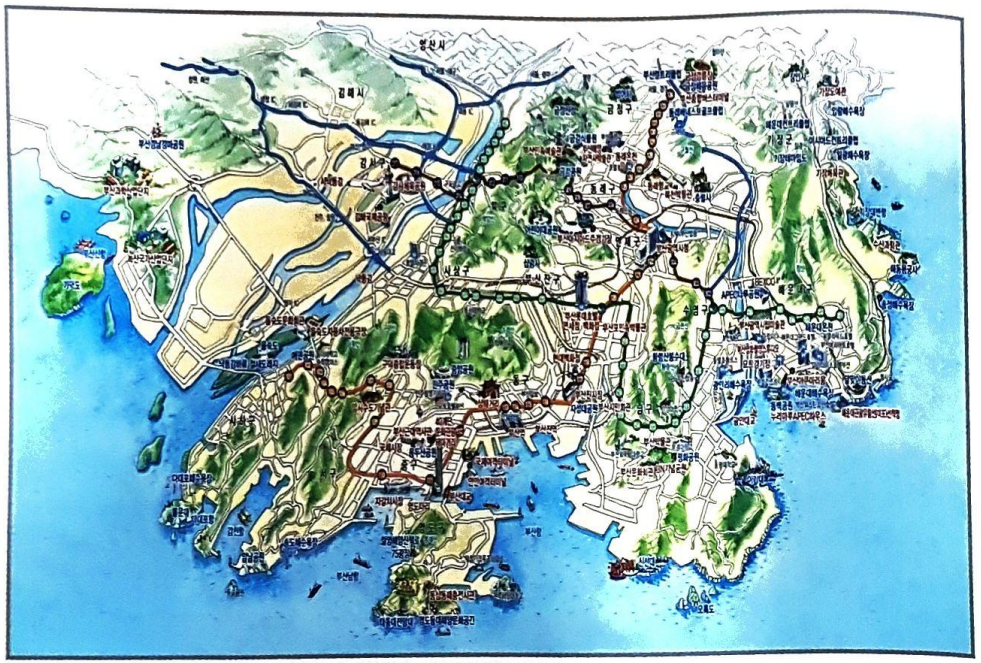
워싱턴DC,
국제도시
마케팅협회(DMAI)
집행이사

부산이 컨벤션 도시인가? 당연히 맞다. 그냥 뚝 잘라서 '컨벤션 도시'가 아닐 것이다. '세계적인' 컨벤션 도시이다. UN에 물론 준회원자격이긴 하지만 도시로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UNWTO(UN의 세계관광기구)에 지난해 6월 가입을 했다. 백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고 전세계 관광공사와 컨벤션뷰로의 모임인 DMAI(Destination Marketing Association International)의 회원도시이자 아시아 도시로는 유일하게 집행이사 도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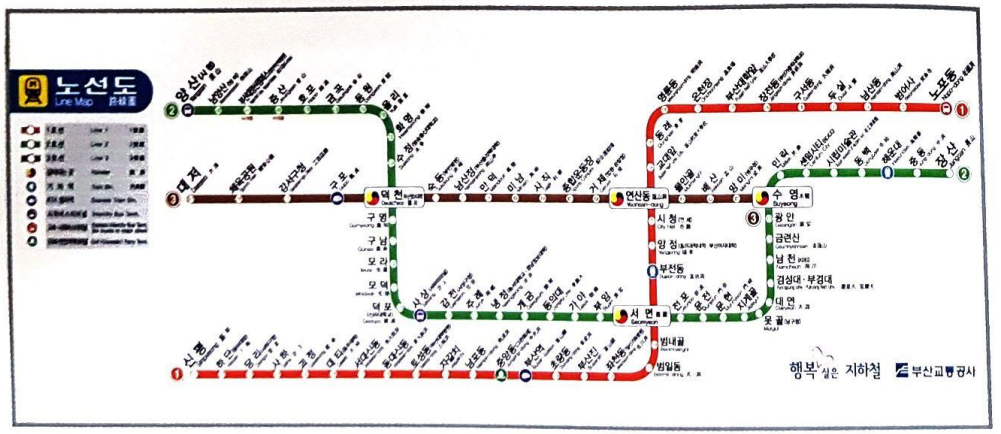
그러면 전시 도시인가? 음... 그렇다. 수산해양분야의 전시 상담행사인 마린위크와 모터쇼 등 세계적인 전시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자, 이번에는 공연 도시인가? 이벤트 도시인가? 이것 저것 예를 들 것은 많이 있다. 피프 부산 국제영화제도 있고, 부산 비엔날레, 광안리 불꽃 축제, 별신굿제, 동래 학춤 등등. 그렇다고 부산을 세계적인 공연 도시, 이벤트 도시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왜 그럴까? 부산은 있는 그대로 제대로 평가 받고 있지 못하다. 아니 부산 사람들의 성향이 수다스럽지 않다. 겉치레를 싫어한다. 자갈치 시장이 그러하다. 생선을 사도 그렇다. 그냥 검은 봉지에 생선을 던져준다.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손님들에게 사라고 현혹하지 않는다. 손님이 오면 옆집 사람과 잡담을 하고 손님을 오히려 외면하기 일쑤다. 불친절하다. 그러나 알고 보면 '겸연쩍음'의 표현이다. "손님에게 사라했다 안사면 어쩌노" 선천적으로 장사속들이 없다. 상품을 포장하고 PR하는 자체가 소인배들이 남을 속여먹는 짓이라 생각하는 것같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뤄지고 있는 컨벤션 상품들이 또 문화 상품들이 자갈치 시장의 생선들 처럼 포장없이 좌판에 무질서하게 널부러져 있는 형국이다. 그 널부러져 있는 생선들이 전국 최고이듯 우리의 콘텐츠는 아주 물이 좋다. 이제는 "뭐 그렇게 까지 하노, 넘사스럽게"라는 말을 하지 말자. 그것만으로도 부산을 세련되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겠다.

〈부산관광안내전도〉



〈부산도시철도 노선도〉



HOTEL PHOENIX

대연회장

스위트룸

웨딩홀

웨스턴스타일식당

피닉스호텔 BUSAN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8-1번지
Tel. 051)245-8061~9 Fax. 051)241-1523

16억 중국인들은 은련(CUP)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

中 관광객 지갑속 필수품 '은련카드'

서울신문 2010.05.06 기사

중국과 일본의 황금연휴(골든위크) 마지막 날인 5월 5일 서울 동대문의 패션상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스카프와 모자 등을 고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국 최대카드업체인 은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 면세점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쇼핑을 하는 중국 관광객의 90%가 은련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관광객 '큰 손님'으로 급부상

연합뉴스 2010.05.19 기사

관광공사 중국팀의 담당자는 "이르면 내년쯤 월별 입국자 수에서 중국인이 일본인보다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단위로는 향후 5년 이내에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주요 가맹점들이
은련카드를 수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가맹점의
중국 관광객 매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요가맹점현황

면세점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워커힐면세점, 동화, AK면세점, 파라다이스면세점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등

특급호텔 신라호텔, 롯데호텔, 조선호텔, 제주호텔, 라마다 등

서울, 제주 및 주요대학 주변 2만여 가맹점

귀 가맹점은 은련카드 수납이 가능하십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맹점은 현재 은련카드 수납이 가능한 가맹점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은련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은련카드 수납절차

은련브랜드 확인 ▶ 단말기 숫자버튼 입력(예:단말기 6번) ▶
카드스와이프 ▶ 일시불선택 ▶ 금액입력 ▶
비밀번호(6자리)입력 ▶ 승인완료

- 단말기 조작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장님께서 알고계신 VAN대리점으로 문의하시면 되며, 기타 은련가맹점 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비씨카드 가맹점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씨카드 가맹점운영팀 김민경 계장 (02-3475-8087)